

8일 Market Index	
↑ 코스피 5872.34 (+377.56)	↑ 코스닥 1089.85 (+53.12)
↓ 금리 (연율) 3.315 (-0.136)	↓ 환율 (원/달러) 1476.25 (-27.95)



‘2주 휴전’ 증시·환율·유가 불안 한시름 났다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 면해

美 “호르무즈 완전·즉각개방 조건” 양국, 10일부터 2주간 협상 진행 환율 1470원대, 유가 100弗 아래로 코스피 6.87% 오른 5872.34 마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떨어졌고, 국제 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증시가 크게 오르내리는 변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자유롭지 못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오르내리면서 실물 경제가 여전히 불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6.87% 오른 5872.34에 마감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업종 전반이 급등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7.12% 급등하며 21만 원(21만500원)선을 회복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증가보다 12.77% 오른 103만 3000원에 마감했다. <관련기사 3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각각 2조7000억원, 2조4000억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은 5조4000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지수가 뛰자, 이날 오전 한 때 코스피와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휴전 훈풍’ 코스피 급상승 마감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77.56포인트(6.87%) 오른 5872.34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12포인트(5.12%) 상승한 1089.85,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3.6원 내린 1470.6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코스피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동반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와 나란히 4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왔던 일본 닛케이평균주가(+5.39%)와 대만 자취안지수(4.61%)도 이날 4~5%대 상승 마감했다. 중국, 호주 증시도 올랐다. 아시아 증시의 이날 강세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안도감이 배경이다. <3면에 계속>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4년 균형론’ 정책 이어받아 ‘유연한 통화’ 이끌 출발점

한은, 내일 기준금리 결정 이창용 총재, 임기 마지막 금통위 신현송, 방향 보다 ‘유연성’ 받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금융 통화위원회가 다가오면서 이번 회의의 미가 단순한 금리 결정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4월 금통위는 지난 4년간 이창용 체제가 보여준 정책 판단의 최종 정리이자, ‘유연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신현송 후보자가 이어받을 한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일 끝난다. 일정상 이번 회의는 사실상 그가 주재하는 마지막 통방회의이다. 후임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통화정책 담당이었던 신현송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 이번 금통위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이창용 체제의 마지막 정책 언어와 차기 체제의 출발점을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 될 전망이다.

◆ ‘균형’과 ‘파장’의 4년 이 총재의 4년은 긴축과 완화를 모두 거친 시간이었다. 기준금리는 2022년 4월 1.50%에서 2023년 1월 3.50%까지 올라갔고, 이후 2024년 10월과 11월, 2025년 2월과 5월 네 차례 인하를 거쳐 현재 2.50%까지 내려왔다. 급등하는 물가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잡는 국면과 둔화하는 성장을 떠받치는 국면을 모두 통과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재가 남긴 가장 뚜렷한 색깔은 물가만 보거나 성장만 고려하지 않았고 금융안정과 환율, 자산시장까지 함께 보는 ‘균형 판단’이었다. 한은은 지난 2월 금리를 2.50%로 동결하면서 “성장은 예상보다 강한 개선세를 이어가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에도 부동산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끝까지 금리 판단의 핵심 변수로 남겨둔 것이다.

이창용이라는 이름이 늘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도 이런 정책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 시장 친화적 메시지보다 불편하더라도 경고를 먼저 던지는 총재였다. 이는 이창용 체제의 특징으로 남는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

대중교통 활성화, 출·퇴근 혼잡 완화 조치

국토부, 범정부 TF 발족 출퇴근 유연화 등 방안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 수요를 대중교통 이용 확산 쪽으로 유도한다. 차량 5부제·2부제 등에 이은 특단의 조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TF(전담반)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유관부처가 참여한다.

공공부문 출퇴근 유연화(재택근무), 출퇴근 시간 외 대중교통 인센티브 부여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즉시 가능한 방안은 선제적으로 조치 및 시행에 들어간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지금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적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승용차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불안 대책’과 관련해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장동혁, 이달 중순 2박 4일 일정 방미...親公화美단체 초청 /사진 뉴시스
▲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회의...李 대통령에도 보고

▲김종리 “시장질서 교란에 무관용...가짜뉴스·사재기 철거 차단”
▲“신공항·취수원 해결”...민주당 약속에 대구 민심 흔들리나

▲안규백 “통합 사관학교 통해 인재 선발...GOP 병력 1/4로 감축”
▲걸프국 대사들, 국회 찾아 “중동산 원유 한국 최우선 공급 노력”

社告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및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일(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 기사를 작성하여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산업계, 협력사 '직접고용' 파장... 현장 중심 구조전환 물꼬

포스코, 협력사 7000명 직고용
불법파견 선고 앞두고 선제 대응
교육·행정비 등 부담 완화 관건



강남 포스코센터 외벽에 걸린 포스코 깃발. /포스코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전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장기화된 불법파견 소송 대응을 개별 소송 중심에서 현장 구조 전환으로 바꾼 첫 사례로 평가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생산현장에서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퇴사 후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는 방식으로, 자회사 편입이 아닌 신규 채용이다. 채용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퇴사와 채용 절차는 병행된다. 협력사 직원 대상 특별전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응 방식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이후

소송 당사자 55명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는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해 왔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200명 이상이 참여한 사건으로, 근로자 측 승소 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 이후 다른 제조업체들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제철은 순천·당진공장 관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 단계에 있고, 1213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형사 재판도 병행 중이다.

한국GM 등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GM은 지난 2022년 이후 거의 매년 발탁채용을 실시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나서왔으며, 그 규모는 13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패소 이후 약 9500명을 직접 고용했고, 동국제강은 2024년 협력사 직원 1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포스코식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 기업은 직고용 전환보다 소송 대응 비용이 낮다고 보고 장기 대응을 택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경제성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채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채용 이후 발생할 인건비와 교육비, 행정비용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결까지 일정 부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적·경영상 상황이 달라 포스코와 직접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노무사는 "포스코는 출발 자체가 공기업으로 대내외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metroseoul.co.kr



>> 1면 '4년 균형론 정책...'서 계속

환율대응 등 변화 예고

이번 금통위는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보다, 지난 4년간 이 총재가 반복해 온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회의에 가깝다.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이 충돌할 때 그는 늘 금융안정과 신호관리의 비중을 높게 두는 쪽을 택했고, 이번 회의는 그런 '이창용식 균형론'의 최종 정리다.

◆ '유연' 내세운 신현송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출발점부터 관심을 끈다. 그는 프린스턴대 교수와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재직을 거쳤고, 2014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교문을 맡아 최근까지 통화정책국을 이끌었다. 글로벌 자본흐름과 금융안정 이슈에 강한 총재가 한은에 온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신 후보자의 첫 메시지도 분명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때때로 비둘기파로 단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동 위기'를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고, 정부의 추경은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설계와 규모를 감안할 때 물가 자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송의 첫 언어가 '방향'보다 '유연성'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 시장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환율을 둘러싼 첫 톤은 적지 않은 해석을 낳았다. 원화가 2009년 이후 가장 약한 수준까지 밀린 상황에서도 그는 환율 레벨 자체보다 "유동성은 건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까지 환율 변동성을 정책 판단의 핵심 변수로 반복해서 언급해온 이창용식 언어와 비교하면, 같은 위험을 두고도 신 후보자의 표현은 한결 더 유연하게 들렸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총재가 물가·성장·금융안정을 함께 보는 균형론을 냈다면, 신 후보자는 같은 복합위기를 더 유연한 톤과 국제금융의 언어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이번 4월 금통위는 금리 결정 그 자체보다, 이창용 체제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남기고 떠나는지, 그리고 신현송 체제가 어떤 문제의식과 어법으로 그 우선순위를 이어받을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공정위, HDC 검찰 고발... "17년간 계열사 부당지원"

임대보증금 명목 무이자 자금 제공
과징금 171억 부과... "경쟁질서 왜곡"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HDC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HDC가 완전자본잠식 계열사에 17년간 임대차료를 위장해 사실상 부당지원을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

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 운영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

사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한다.

HDC는 아이파크몰의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 3월경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 사용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HDC가 매장을 빌리면서 360억 원의 보증금을 냈지만, 정작 운영권은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긴 것으로, HDC는 매장을 직접 사용할 의사 없이 자금만 공급하는 '전주(錢主)' 역할

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원에 따라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장기간 333억원~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출수 있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HDC의 360억원 수혈이 없었다면 아이파크몰은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라며 "부당한 지원 덕분에 생존한 아이파크몰이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유력 사업자가 된 것은 명백한 경쟁 질서 왜곡"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수출기업 위축... 제조업 체감경기 둔화

상의,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반도체·화학품 선방... 정유·석화 부진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우려가 겹치며 올해 2분기 제조업 체감경기는 소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8일까지 전국 제조기업 227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6으로 직전 분기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BSI는 100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기업의 2분기 BSI는 78로 전 분기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수출기업의 BSI는 70으로

20포인트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중동 사태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기업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화학품이 기준치 100을 웃돌며 비교적 양호한 전망을 유지했다. 반도체 업종의 2분기 BSI는 118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연속 긍정적 전망이 이어졌다. 화학품 업종은 전 분기보다 18포인트 하락한 103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며 개선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정유·석유화학과 철강은 부정적 전망이 이어졌다. 정유·석유화학업종의 2분기 BSI는 56으로 전 분기보다 21포인트 하락해 조사대상 업종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원관희 기자 wkh@



2월 경상수지 232억佛... 월간기준 최대

반도체·정보통신기기 수출 급증

지난 2월 경상수지가 231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수출 급증이 흑자를 밀어올린 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는 132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나타내 실물과 금융의 온도차도 드러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231억9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1월 132억6000만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흑자 확대를 이끈 것은 상품수지다. 2월 상품수지는 233억6000만달러 흑자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품수출은 70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9.9% 늘었고, 상품수입은 470억달

러로 4.0%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1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월 38억달러 적자보다는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겨울방학 해외여행 성수기가 지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12억6000만달러로 축소됐고, 기타 사업서비스수지도 연구개발 및 관계기업 간 사업서비스 지급 감소 영향으로 6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4억8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228억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6억4000만달러 늘어난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19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는 132억7000만달러 순유출을 나타내 역대 최대 순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社告

-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 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이스라엘, 조건부 휴전 동의... 이란, 역내 미군 철수요구

네타냐후, 레바논 교전 휴전서 제외
이란, 우라늄 농축·제재 해제 요구
호르무즈 개방 놓고 미·이란 평행선
친이란 충돌 땀 휴전 파기 가능성
10일 대면 협상 앞두고 중동 안갯속

전쟁당사국 이스라엘도 2주간의 휴전에 동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러나 레바논 헤즈볼라 등과의 교전은 중단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주변에 모여든 항공모함을 비롯, 서아시아 주둔 미군 병력의 전면적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2주 내 이스라엘의 친이란 세력에 대한 포격·공습이 끊이지 않거나, 이란의 중동지역 제3국 기반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이 단행될 시 일시 휴전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은 종전의 길로 향하기 위한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 중이다.

알자지라방송·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종전 조건 10개항

- 호르무즈 항행**
 - 이란군의 조율 하에 통제되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 이란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호르무즈 안전 통행 및 교통 프로토콜 수립
- 전쟁 종식·병력 철수·배상**
 - 불가침 보장
 - 이스라엘 정권의 저항의 축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전쟁 종식
 - 걸프 지역 내 모든 기지 및 주둔지에서 미국 전투 병력 철수
 - 이란의 전쟁 피해 전액 배상
- 제재 해제**
 - 모든 1·2차 제재, IAEA 이사회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전면 해제
 - 해외에 동결된 이란의 모든 자산재산의 해제
- 핵 개발**
 - 우라늄 농축 허용
- 구속력 있는 유엔 결의안**
 - 이 모든 사항을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자료: 4월 8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성명 /뉴시스 그래픽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대 이란 전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는”고 밝혔다.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을 겨냥한 지상전은 언제든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다.

휴전 결정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총리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미국·이스라엘 및

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발표 4시간쯤 후인 8일(현지시간) 오전 성명을 내고, “이번 2주간의 휴전은 레바논에는 적용되지 않

역내 국가들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한다는 조건하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2주 중단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 “이란이 더 이상 미국, 이스라엘, 아랍국가 및 전 세계에 대해 핵·미사일·테러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반면 이란은 애초 휴전 대상에 레바논 전장 포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를 이끌어낸 세바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이란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이스라엘이 이를 반박하는 총리실 성명을 낸 것.

10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당사국 간 대면 협상이 예정되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드러난 미국-이란 양국 간 입장 차는 크다.

뉴욕타임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란이 미국·이스라엘 상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또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목의 종전안을 미국 측이 전부

수용했다고 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10개 항목으로 된 제안 관련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만 언급한 상태다.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은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통제 지속 ▲역내 모든 기지에서 미 전투병력 철수 ▲이란에 대한 주요 제재 해제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미사일 개발, 시위대 탄압 문제에 대한 중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전에 서방이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를 포기할 의향이 과연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또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 시작 시점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국과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원화값 한달 만에 급반등... 추가 상승 여부는 미지수

중동 리스크 완화에 원·달러 1470원대
국제유가 하락·달러 약세, 투자심리 회복
외국인 재유입에 원화값 큰 폭 반등

연일 달러당 1500원을 웃돌던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렸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던 ‘중동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영향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고,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돌아오자 원화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0.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과 비교해 33.6원(2.23%) 급락한 수준으로, 주간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3월 1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원화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값 상승)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최근 원화값 하락의 원인이 된 ‘중동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어서다.

시장의 예측을 뒤집은 일시휴전은 당초 트럼프가 예고한 시한을 2시간 앞두고 타결됐다. 미국 측이 제시한 15개 항

목과 이란 측이 제시한 10개 항목을 두고 협상한다는 조건에서다.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중단할 것”이라며 “이란으로부터 10개의 항목 제안을 받았고,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합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약 40분 뒤, 세에드 압바스 아라키 이란 외무장관은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강력한 군대도 방어 작전을 중단할 것”이라며 “(휴전이 지속되는) 향후 2주 동안 기술적 조건을 고려하고 이란군과의 협조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직후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지난 7일 장중 배럴당 117.63달러까지 올랐던 서부텍사스유(WTI)는 18달러 넘게 급락했고, 111.75달러에 거래됐던 브렌트유도 약 16달러 내렸다. ‘중동사태’ 발발 이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80달러 선에 머물렀던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된다면 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시휴전으로 위험선호가 회복되면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는 약세 전환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값을 나타내는 달러지수(DXY)는 8일 장중 98.72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30일의 100.51(100보다 높으면 달러 강세)과 비교해 1.67 내린 수준이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두바이유’ 수급 우려에 급락했던 한국 원화(KRW)-일본 엔화(JPY)-대만 달러(TWD)는 일제히 달러 대비 강세 전환했다.

특히 원화는 중동사태 이후 이탈했던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재유입되면서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강세폭이 가장 컸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휴전이 일시적인 만큼 불안요소가 여전하고, 중동사태의 여파도 여전해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원화 가치 하락의 배경 가운데는 지난 몇 년간 막대하게 풀린 통화량이 있다”면서 “최근에는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진다면 원화값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전선언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도 하락했지만, 2주 동안의 휴전 이후 중동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정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총력”

미·이란 휴전에 선박 26척 통항 기대
선사협·리스트 점검하며 운항 준비
청와대, 중동 상황 예의주시하며 점검

청와대는 8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한국 선박은 26척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지는 “통항에 필요한 선박리스

트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선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내부 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참모진은 이란과 미국의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위 실장은 실

시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동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데다 원유나 나프타(납사) 등 주요 산업 자원 공급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비상경제상황실은 당분간 계속 가동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낼 생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쪽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휴전 소식에 금융시장 안도... 유가·환율 급락

>> 1면 '2주 휴전... 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저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며 “양측에 모두 적용되는 휴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결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이란과의 장기적 평화 및 중동 평화를 위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파키스탄의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경우 이란 역시 방어 작전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 군과의 협조를 통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유가도 한숨을 돌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간 8일 오후 3시 10분 기준 전장 대비 15.46% 급락한 배럴당 95.49달러를 나타냈다.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4.24% 내린 배럴당 93.71달러를 나타냈다. /하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

“전자부문 미래는 오직 ‘반도체 자급’”... ‘도쿄 선언’ 결실

SAMSUNG

① 42년의 베틱, 왜 반도체였나

1974년 한국반도체 인수로 첫발
오일쇼크에 ‘핵심부품 자급’ 주목
1983년 64K D램 개발 착수·성공
韓 산업지도 방향 바꾼 분기점 돼

TV와 가전을 만들던 전자회사가 어떻게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정점에 올랐을까.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메모리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으며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글로벌 업계 1위 복귀를 노리는 삼성 반도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42년 전 그룹의 운명을 바꾼 선택에서 출발했다.

그 결실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의 57조 2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43조6000억원)을 한 분기 만에 넘어섰다. AI 확산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이 직접적 배경으로 꼽히지만, 이 실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1983년 2월 8일로 닿는다. 삼성의 운명을 바꾼 ‘도쿄 선언’이 있던



1987년 8월, 삼성전자 반도체 3라인 착공식에서 (가운데 왼쪽부터) 이근회 선대회장, 이병철 선대회장이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날이다.

삼성 반도체의 시작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1974년 삼성은 과산 직전의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며 반도체 산업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자체 기술은 전무했고, 사업은 그룹 내에서도 존재감이 미미했다. 이 시기는 사실상 ‘미운 오리’로 불릴 만큼 그룹 내부 담으로 여겨지던 시기였다. 한동안 반도체는 미래 성장의 씨앗이었지만, 동시에 그룹의 짐으로 인식되던 사업이었다.

전환점은 오일쇼크였다. 당시 경영난을 지켜본 이근회 회장은 전자부문의 생존 조건이 핵심 부품의 자급에 있다는 문

제의식을 갖게 됐다. 이 시기를 계기로 고부가가치 첨단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완제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구조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지 않으면 전자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당시 그룹 내부에서는 “전자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핵심부품인 반도체의 자급”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식적인 결단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뜻이었다. 당시 이 회장은 반도체 사업에 먼저 진출해 있던 고(故) 김완

희 한국반도체 사장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냉정한 거절을 받았다. 역설적으로 이 일은 반도체 진출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됐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한계를 첨단기술로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가장 위험한 산업으로 꼽히던 반도체에 그룹의 미래를 걸었다. 외부에서는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최첨단 반도체는 무리”라는 회의론이 이어졌고, 재계 일각에서는 “3년 안에 실패할 것”이라는 냉소도 뒤따랐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를 정면 돌파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1983년 2월 8일, 이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그룹 차원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른바 ‘도쿄 선언’이다. 당시 선언문에는 삼성의 문제의식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고도의 첨단기술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는 문구는 당시 삼성의 산업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원 없는 나라의 생존 전략으로 반도체를 택한 것이다.

수많은 첨단 산업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를 선택한 배경도 분명했다. 삼성은 이미 TV와 가전 사업을 통해 대량생산, 공

정관리, 원가 절감, 수율 확보에 강점을 갖고 있었다.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은 바로 이러한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동하는 산업이었다. 낮은 첨단 산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삼성의 제조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였다.

승부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실을 맺었다. 삼성은 1983년 5월 64K D램 개발에 착수했고, 불과 6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1일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과 일본에 10년 이상 뒤져 있던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힌 사건이었다. 이는 삼성 반도체 도약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한국 산업지도의 방향을 바꾼 분기점이 됐다. 이후 삼성은 256K, 1M, 4M D램으로 세대 전환을 선점했고, 1992년 D램 세계 1위,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다. 불과 10년 만에 후발주자에서 세계 정상으로 올라선 것이다. 1분기 57조2000억원의 잠정 영업이익은 단순한 호실적이 아니라, 42년 전 생존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까지 이어진 결과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 붐 계속된다”... 삼성전자 다음은 SK하이닉스

이달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 증권사, 영업의 최대 약 39조 전망 가격 변동성·수요구조 등 변수

삼성전자가 한 분기 만에 57조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초대형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자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타자’인 SK하이닉스로 이동하고 있다. 이달 23일 예정된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이익 가속 구간에 진입했다는 기대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8일 SK하이닉스는 중동 휴전 기대감

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과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12영업일 만에 ‘100만 닌스’를 회복했다. 전일 대비 13.65% 상승하며 104만1000원을 기록했다.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46조6252억원, 영업이익 31조56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324%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영업이익이 3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매출 48조4000억원,

영업이익 34조5000억원을, 하나증권은 매출 53조5000억원, 영업이익 36조9000억원을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영업이익 38조9000억원까지 전망치를 높이며 기대치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AI 수요 확대가 핵심 배경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탑재량 증가가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 저항이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1분기를 기점으로 이익 가속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도 이어지고 있다. KB증권은 170만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180만원, 노무라증권은 193만원까지 제시했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역시 각각 145만원, 150만원, 160만원으로 눈높이를 높였다. 특히 ADR 상장 추진과 장기공급계약(LTA) 확대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우선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핵심이다. 현재 가격 상승은 AI 서버 수

요와 선제적 재고 확보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향후 수요 둔화 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수요 구조 역시 변수다. 현재 메모리 수요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등 빅테크 중심의 AI 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HBM 관련 노이즈가 존재하지만 경쟁사 대비 수율과 고객 수요를 고려하면 여전히 선두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장기 계약 확대에 따른 가시성 확보 여부와 계약 조건이 향후 주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metro

제품판매 넘어 유통망 장악... 해외 현지 뷰티시장 공략

K뷰티 지도 바뀐다

③ 선반으로 글로벌 판 설계

올리브영, 美 1호점 내고 B2B 확장
관광 상권 고도화·온라인 역량 강화
구다이글로벌, 美 이어 日 공략 박차

K뷰티의 대동맥 CJ올리브영, 브랜드 포식자 구다이글로벌 등이 K뷰티 성장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유통망 구축, 물류 공급 등으로 ‘선반’을 직접 장악하며 K뷰티 가치 사슬을 재편한다.

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글로벌 뷰티 채널’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리브영의 전략은 명확하다. 국내에서는 방한 외국인을 위한 ‘관광 필수 코스’를 바탕으로 글

로벌 소비자를 확보한 후 온라인몰을 통해 K뷰티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한다.

올리브영은 올해 들어 서울 광화문 ‘올리브베러’, 명동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 등을 연달아 공개해 오프라인 매장을 고도화했다. 해당 지역 모두 외국인 관광 상권으로 K뷰티 쇼핑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디지털 채널에서도 역량이 강화된 모습이다. 올리브영 온라인몰 매출 비중은 2024년 28.3%, 2025년 30.7% 등으로 커졌고 2025년 4분기에는 31.6%까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1호점을 마련해 세계 최대 시장에서 ‘K뷰티 쇼케이스’를 선보이는 동시에, 세포라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확장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1호 매장 문을 열며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매장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서 기업과 기업간 거래(B2B)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K뷰티 공급망의 중심 축을 세워 해외 현지 뷰티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다이글로벌 역시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유통망을 이식하는 수직계열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구다이글로벌은 인디브랜드 조선티너, 스킨1004 등을 시작으로 1세대 로드숍 스킨푸드까지 10여 개 브랜드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최근 미국 현지 유통사 ‘한성USA’를 인수한 데 이어 일본법인 D&ACE 사명을 ‘구다이글로벌제팬’으로 변경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오동훈 구다이글로벌제팬 대표도 새롭게 선임됐다. 오 신임 대표는 지난 10



미국 캘리포니아 블룸링턴에 위치한 올리브영 물류센터, 미국 서부센터 전경. /CJ올리브영

여 년간 일본 뷰티 시장에서 메디큐브, 아누아 등의 현지화를 주도한 유통 전문가다. 이번 사명 변경과 전문 인력 영입으로 구다이글로벌은 일본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다이글로벌제팬은 이다, 오오야마 등 일본 핵심 공급사와 손잡고 전역 1만 3000여 개 소매점 입점 구조를 확보해 왔다. 또 기존 일본 주요 채널인 옛코스메, 로프트, 플라자 등에 구다이글로벌 레이블 브랜드를 입점시키며 소비자 접점을 늘렸다.



구다이글로벌이 인수한 K뷰티 브랜드 ‘티르티르’가 일본 뷰티 편집숍 ‘플라자’ 매장에 입점되어 있다. /구다이글로벌

구다이글로벌은 향후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유통 허브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한성USA가 북미 핵심 기지 역할을 하며 구다이글로벌제팬과 협업해 다양한 글로벌 뷰티 브랜드를 국경 없이 공급하는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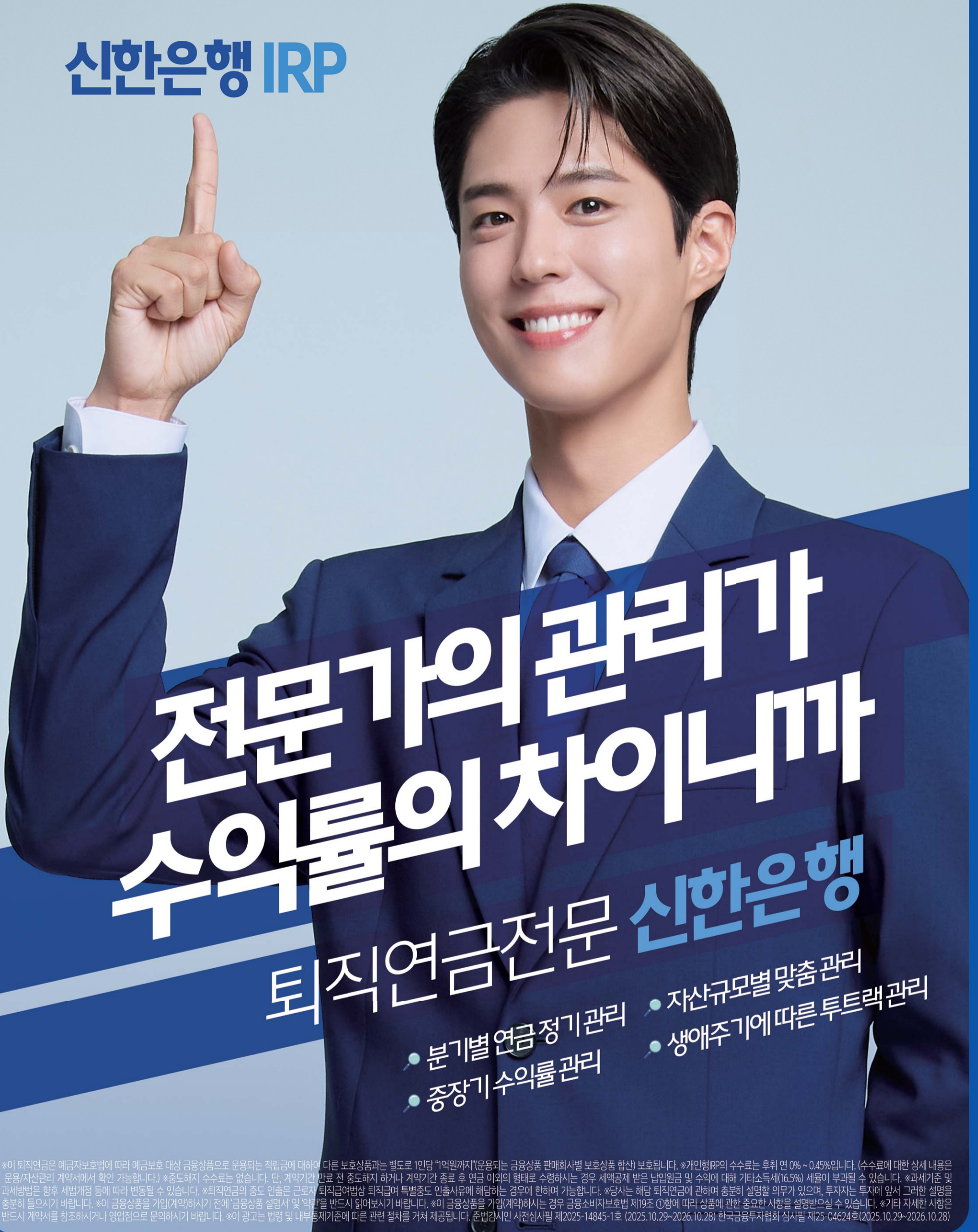


metr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 IRP



전문가의 관리가 수익률의 차이니까

퇴직연금전문 신한은행

- 분기별 연금 정기관리
- 중장기 수익률 관리
- 자산규모별 맞춤 관리
- 생애주기에 따른 투트랙 관리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개인형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 ~ 0.45%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5-14845-1호 (2025.10.29~2026.10.28)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4624호(2025.10.29~2026.10.28)

이 대통령, 이시바 전 총리 만나 ‘한일 협력 강화’ 공감

‘아산 플래넘 2026’ 참석차 방한
 李 “재임기간 관계 안정에 감사”
 한일 관계 발전·국제정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총리께서 재임 중일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 되는 상태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시바 전 일본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꼽힌다. 두 사람은 한일관계 발전 방향과 최근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도 많고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재임 중)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곳은 일한관계 발전이었다”면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양자) 관계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오찬장에 놓인 꽃을 들고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해 이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난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임자인 다카이치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서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면서 “작년은 일본과 한국 간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는데

정치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작년 한일 정상 간 서훈외교를 복원한 이후 한일관계 발전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시바 전 총리가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또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성과를 거두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도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아산정책연구

원의 연례 포럼 ‘아산 플래넘 2026’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9월30일 부산 해운대에서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만나 서훈외교 복원에 뜻을 모았다.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한편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아산 플래넘 2026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란발 중동 위기 대응과 관련해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일이 유엔에서 대응 논의를 함께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jy@metroseoul.co.kr



metro

“김부겸은 제2의 노무현”... 민주당, 대구 찾아 표심 구애

민주당 최고위, 대구 찾아 후보 지원
 ‘미래모빌리티 산업 도시’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시장 후보로 나선 대구를 찾아 “김 후보는 대구 선거를 이길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강조했다.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제2의 노무현”이라며 대구·경북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인터볼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의 희망찬 봄을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는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부겸 전 총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대구 선거를 이길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또 말을 이었다 저했다 하는 바람에 대구·경북 통합이 멈춰 섰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김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힘을 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8일 오전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민생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쳐 대구·경북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최고위를 마치기 직전 정 대표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김부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았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종로 꽃길을 마다하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부산 가시밭길에 가서 도전했듯 김 후보도 노

전 대통령처럼 군포 꽃길을 마다하고 이곳 대구 가시밭길에 내려왔으니 김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을 닮았고 김 후보는 제2의 노무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후보가 꽃길을 마다하고 가시밭길을 왔는데 그 가시밭길이 다시 꽃길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후보는 “그동안 대구 시민이 너무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다”며 “많은 대구 시민이 저를 보고 대구가 다시 살아날 길을 열어 달라 하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금 대구가 오랫동안 멈춰있어서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예산과 정책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구에 중요한 약속을 했다”며 “이에 화답하듯 정 대표께서도 ‘무엇이든 다 해드립니다 센터장’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저는 이 보증 수표를 믿고 대구를 앞으로 첨단 기술이 융합된 메디시티, 인공지능(AI)로봇 수도,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선도 도시를 대구 미래 비전으로 만들어 그 약속을 시민의 삶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추경 26조 → 30조로 상임위 심사서 증액

국회 상임위원회 중동 사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심사과정에서 3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증액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총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상임위 10곳 중 9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추경 증액은 상임위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739억46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099억6000만원 ▲보건복지위원회 3445억8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872억5500만원 ▲국토교통위원회 1985억38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733억6500만원 ▲교육위원회 907억6100만원 등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가장 많이 증액 금액이 가장 큰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농어촌 유통비·전기요금·사료 지원 등 명목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까이 증액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8048억50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 사업 예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안과, 고유가 피해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7398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모두 예결위 심사로 올렸다.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금액은 3조4832억원 규모다. 산재위에서도 증액의 결될 경우 증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에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컷오프’ 주호영 “향고심 후 거취 결정”

“장동혁 대표, 결단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사진)은 8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자신의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향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향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장동혁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지난 3일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줄이를 공천 소송을 우려해 ‘정당 자율성’이라는 장막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치가 제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의 병폐가 당원권과 시민의 선택권을 짓밟는 데도 사법부까지 외면한다면 ‘공천 민주주의’는 누가 지키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에게는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 다수가 ‘윤여거인’을 원치 않는 데도 분명한 태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살신성인과 선당후사를 말하려

면 장 대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며 “저는 그런 장동혁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분명히 요구한다. 장 대표는 결단하라. 더 늦기 전에 책임지라.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LEEUM
In partnership with
KB Financial Group

리움미술관 현대미술 소장품전 전시 후원
사진 이현구, 사진 제공 : 리움미술관

화랑미술제 'ZOOM-IN Edition 7'
KB스타상 조각부문 수상자 <송인욱>



Kiaf SEOUL 2024~2026 리드 파트너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Kiaf SEOUL 2025

Kiaf SEOUL | KB금융그룹

국민의 일상에 문화를 그려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처럼 쉽게 문화를 즐기고

K-컬처를 이끌어갈 신진 작가들은
그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K-컬처 리딩 금융그룹 KB,
금융을 넘어 문화 강국의 주인공이 될
국민의 내일을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MUSEUM

K-Culture
밸류업 프로젝트

Kiaf SEOUL
3년 연속 리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아트 페어 지원

화랑미술제 신진작가 특별전
ZOOM-IN Edition 7
신진 작가들의 창작과 성장 지원

리움미술관 전시 후원
예술작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리움미술관 전시 후원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 전시 관람, 체험 프로그램 지원

KB 금융그룹

인니·태국 이어 몽골까지... 카카오뱅크 '금융영토 세계화'

윤호영 대표, 기자 간담회
“축적된 중저신용자 신용평가 모델 ‘카카오뱅크 스코어’ 몽골에 전수 시장 규모보다 성장 가능성 중요”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몽골로 금융영토를 확장한다. 이곳에서의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넓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중저신용자 신용평가모델(CSS)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몽골 금융기관에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의 ‘슈퍼뱅크’에 투자했다. 슈퍼뱅크는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현지 시가총액 1위 디지털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튀르키예 M 시아한 슈퍼뱅크 대표는 “출시 9개월 만에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고, 지난 2월 기준 64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은 단순한 투자지원이 아니라 디지털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가 8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올해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뱅크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모든 은행 산업에 의미있는 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SCBX그룹과 합작해 가상은행 ‘뱅크X’를 내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 몽골 공략 포인트는 ‘신용평가’

현재 몽골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 구조 속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다. 신용카드·대출 이력 등 전통적 신용정보가 부족한 데

다 비정형 소득 비중이 높아 금융권이 리스크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틈을 파고들어 카카오뱅크가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델을 앞세워 몽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단순히 현재 시장 규모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과 현지 파트너십을 더 중요하게 본다”며 “몽골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초기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선언

윤 대표는 또 인공지능(AI) 기술로 모두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앱 기능이 많아질수록 고객은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려워지는 ‘확장의 역설’이 나타난다”며 “복잡한 금융 문제를 AI가 먼저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2700만 고객의 앱 기반 데이터와 금융 특화 대형언어모델(LLM)을 결합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결제홈’에는 고객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 가이드를 제공하고, 투자 탭에는 AI 기반 투자 에이전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 대표는 “현재 카카오톡 상담 챗봇이 전체 고객 상담의 70%를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결제 내역을 분석해 지출 절감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금융이 고객의 생활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6개월째 공석... LH 신임사장 재공모

주택공급 절벽 현실화... 혼선 거듭 16일까지 임기 3년 사장 공모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재공모에 나섰다. 주택 공급 절벽이 이미 현실화됐고, 전임인 이한준 사장이 퇴임한 지 1년여가 되어가고 있지만 혼선만 거듭되고 있다. 이 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작년 7월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공석 상태다.

LH는 8일 오후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출서류를 기초로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주택공급 정책 역시 차질을 빚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통해 향후 5

년간 공공주택으로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중 LH가 담당하는 물량이 55만6000호로 41.2%에 달한다. 공공택지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에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전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취임했다가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7월 사의를 표했다. 수리되지 않던 사표가 받아들여진 것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작년 10월 말이다. 다음달 바로 신임 사장을 공모해 임추위가 작년 말 후보로 3명을 추천했지만 정부가 모두 LH 내부 인사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에는 사장 직무대행이었던 이상욱 부사장이 물러나면서 현재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대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금융, 생산적 금융 대전환 나서

GS건설 등 4곳과 업무협약 체결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이 GS건설, 지베스코자산운용, 디씨브릿지, 자이C&A와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소재 GS건설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강성목 하나금융 부회장 겸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호성 하나은행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각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금융은 GS건

설 등과 상호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한 자금 지원 ▲투자 및 펀드 조성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사업 기회 발굴 및 공동투자 개발 등 사업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업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AI 데이터센터 밸류체인(투자, 임대, 운영)이 구축된 GS건설의 관련 자회사들도 참여한다.

하나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 자본 투자를 넘어, 초기 개발 단계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주가 급락에 채권금리 급등 중동 리스크 ‘금융시장 요동’

한국은행, 3월 금융시장 동향
외국인 증시 40.5조 매도 ‘사상최대’

중동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지난 3월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주가는 급락하고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5%로 2월 말보다 0.41%포인트(p) 상승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88%로 0.30%p 올랐다. 회사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한은은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가 장기금리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은 더 크게 흔들렸다. 코스피는 2월 말 6244에서 3월 말 5052로 12.0% 급락했고, 코스닥은 같은 기간 1193에서 1037로 13.1% 떨어졌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강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특히 3월 중 외국인 순매도는 국내주식을 40조5000억원 순매도해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 대출 흐름을 보면 가계대출은 2월 4000억원 감소에서 3월 5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2월 3000억원 증가에서 3월 포함으로 돌아섰다. 전환의 배경은 기타대출이다. 기타대출은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5000억원 늘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로 주담대는 힘이 약해진 반면, 금융시장 변동성 속 투자자금 수요가 기타대출에 반영된 셈이다.

기업대출은 3월에도 상당폭 증가했다. 은행 기업대출은 2월 9조6000억원 증가에 이어 3월에도 7조8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은 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대기업대출도 3조4000억원 늘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요 은행의 기업여신 확대 기조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회사채 상환자금 조달수요 등이 배경으로 꼽혔다.

수신 측면에서는 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자산운용사에서는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3월 은행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20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29조1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주식형펀드는 잔액 기준 18조8000억원 줄었고 MMF도 4조7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한은은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며, 평가액을 제외하면 3월 중 주식형펀드 신규자금은 9조6000억원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항공기내 보조배터리 1인당 2개 ‘반입제한’

국토부, 제각각 글로벌 규정 통일

오는 20일부터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보조배터리가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과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국가별로 제각각이었던 규정이 통일되면서 이용객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과 선반 보관 금지 등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다만 국가별, 항공사별 규정이 달라 혼선이 이어져 왔다.

개정된 국제기준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줄이고 화재 유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기존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가 따로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 허용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보조배터리는 160Wh 용량 이하로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우리은행 2050 탄소중립 위해 ‘NEXT 50’ 과제 선정

우리은행은 2050년 탄소중립(Net-Zero·넷 제로) 달성 및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ESG 경영 전략인 ‘NEXT ESG’를 수립하고 ‘NEXT 50’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NEXT ESG’는 우리금융그룹의 ESG 비전인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구체화했다. ▲탄소배출 감소 ▲금융의 사회적 가치 창출 ▲ESG 전문성 강화와 실천 ▲투명한 ESG 공시와 지배구조 확립 등 ESG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핵심과제인 ‘NEXT 50’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재활용 확대 ▲친환경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 등 50가지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한다.

심성진 우리은행 ESG상생금융부 부장은 “ESG는 환경보호를 넘어 고객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NEXT ESG’ 전략을 통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HD한국조선, 이달에도 2조원대 수주...훈풍에 돛달아

LPG선 등 14척 계약, 68척 수주
삼성중 16척, 한화오션 12척
분기 합산 영업이익 2조대 전망



HD현대삼호에서 건조해 지난 2024년 인도한 17만 4000 입방미터(m³)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HD현대

HD한국조선해양이 이달에도 총 2조원대 대형 선박을 대거 수주하며 연간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1분기에만 연간 수주 목표의 20% 이상을 채운 가운데, 중동사태에 따른 물류환경 변화와 무역질서 재편, 미국의 대중국 봉쇄 등 요동치는 국제해운 환경속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수요를 끌어담는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다.

8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일과 7일 총 1조9710억원 규모의 선박 1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일에는 그리스 선주와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각각 9만m³급 LPG 운반선 2척과 4만m³급 LPG 운반선 2척 등 총 4척을 수주했다. 계약 금액은 각각 3498억

원, 2393억원이다. 해당 선박은 HD현대삼호와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이들 선박에는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이 탑재된다.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는 6117억원 규모의 5만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8

척도 수주했다. 이 선박은 HD현대중공업 합정·중형선사업부에서 건조해 오는 2029년 상반기까지 인도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소난골 쉬빙 홀딩 리미티드로부터 7702억원 규모의 17만4000m³급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해당 선박은 HD현대삼호에서 건조해 오는

2029년 하반기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68척, 72억5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233억1000만달러의 31.1%를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12척, 컨테이너선 20척, LPG·암모니아 운반선 9척, 원유운반선 7척, PC선 20척이다.

조선업 전반의 수주 흐름도 견조하다. 지난 5일 기준 삼성중공업은 16척, 31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의 약 22%를 달성했고, 한화오션은 12척, 24억3000만달러를 수주해 지난해 연간 실적의 약 24%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주 확대는 실적 개선에도 반영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약 1조92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1조1902억원, 한화오션은 48.2% 늘어난 3833억원, 삼성중공업은 138% 증가한 348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상 물류 환경을 변화시키며 선박 발주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석유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부 선사들이 항로를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등 운항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상승 영향으로 탱커, 가스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의 발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metro

LG전자, 혁신 에어케어 솔루션 대거 공개

에어페어 2026

금속유기골격체 소재 필터 기술 선행
퓨리케어 시스템 공기청정기 등 소개



모델이 노벨화학상 소재 금속유기골격체(MOF) 필터가 적용된 'LG 퓨리케어 AI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 M7'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노벨화학상 수상 핵심 물질인 금속유기골격체(MOF) 소재를 적용해 유해가스 제거 성능을 극대화한 차세대 필터 기술과 공간 맞춤형 에어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는 8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기후테크 공기업박람회 '에어페어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LG전자는 차세대 필터 기술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춤형 혁신적인 에어케어 솔루션을 대거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주요 제품은 노벨화학상 수상 핵심 물질인 금속유기골격체(MOF)를 적용한 차세대 필터다.

MOF는 미세기공 구조를 통해 적은 양으로도 매우 큰 표면적을 구현하는 신소재로, 유해가스나 냄새를 강력하

게 흡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소재가 적용된 'M7 필터'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이 필터 2개가 탑재된 공기청정기 한 대는 축구장 11.7개 크기에 달하는 표면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또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요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 등 먼지 4종과 TVOC, 포름알데히드, 암

모니아 등 유해가스 3종 등 8가지 오염원을 감지해 보다 제거한다.

LG전자는 이번 에어페어에서 처음 공개하는 'LG 퓨리케어 시스템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 맞춤형 에어케어 솔루션도 선보인다.

이번 청정기는 천장에 설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거실뿐 아니라 드레스룸 등 작은 방에서도 공간 제약 없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LG 퓨리케어 시스템 공기청정기는 프리 필터와 미세먼지 필터, 탈취 필터를 기본 탑재했다.

LG전자는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에어로미니'와 'LG 퓨리케어 AI 오브제컬렉션 윌핏'도 소개한다.

이밖에도 전시장 안에 거실과 침실, 욕실 공간을 꾸며놓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에어컨, 욕실 환기 시스템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 등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제시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대한항공은 8일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MUAV 양산 1호기 출고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항공,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 출고기념식... 300여명 참석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의 전라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양산에 참여하며,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는다.

대한항공은 8일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MUAV 양산 1호기 출고기념식'을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대한항공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한화시스템 공동 주최로 열린 출고기념식은 합동참모본부, 공군,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민·관·군 주요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출고된 1호기는 길이 13m, 폭 26m에 강력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했다. 이 무인기는 고도 10km 이상의 상공을 날며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할 수 있다. MUAV가 실전에 배치되면, 적 전력 표적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작전지휘 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한항공은 MUAV 체계 종합 업체로서 공군의 전력화 일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하이닉스, 'PQC21' 고객사 공급

QLC 기반 cSSD 점유율 확대

SK하이닉스가 AI PC 시대를 이끌 차세대 고성능 저장장치 설루션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자사 최초로 개발한 321단 쿼드러플 레벨 셀(QLC) 낸드플래시 기반 SSD 제품인 'PQC21'의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사에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낸드는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에 몇 비트(Bit)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SLC(1비트), MLC(2비트), TLC(3비트), QLC(4비트), PLC(5비트) 등으로 나뉜다.

다.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PQC21은 고용량·고성능·저전력 특성을 겸비한 차세대 스토리지 설루션으로, 특히 AI PC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저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제품의 핵심은 고층 적층(321단)과 QLC 기술의 조합이다. 셀(Cell) 하나에 4비트(Bit)를 저장하는 QLC의 강점을 활용해 단위 면적당 저장 용량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1TB(테라바이트), 2TB 두 가지 용량으로 제품을 출시하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현재 시장 주류는 TLC 기반 제품이지

만 최근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함에 따라 고용량 구현에 유리한 QLC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따르면 전 세계 cSSD(PC·랩톱용) 시장에서 QLC 낸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2%에서 오는 2027년에는 61%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오는 4월부터 글로벌 IT 기업인 텔 테크놀로지사를 시작으로 본 제품의 공급을 본격한다. 이후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공급을 발판 삼아 차세대 AI PC 시장 내 스토리지 주도권을 확보하고, QLC 기반 cSSD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TV·사운드바 등 '탄소저감' 인증

프리미엄 제품 전반 탄소중립 실현

삼성전자의 2026년형 OLED·더 프리미엄 프로 TV와 사운드바 등 14개 모델이 독일 'TUV 라인란드'로부터 '탄소저감'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 TV와 미니LED TV 등 20개 모델에서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하며 프리미엄 라인업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Neo QLED TV를 통해 4K 이상 해상도를 가진 TV 최

초로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한 이후 ▲QLED ▲OLED ▲라이프스타일 TV ▲모니터 ▲사이니지 등 다양한 제품군의 탄소 저감 인증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올해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OLED·더 프리미엄 프로 등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TV뿐 아니라 제품군 전반으로 탄소 중립 노력을 확대하며 2026년형 사운드바 Q990H는 '탄소발자국'과 '탄소저감'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차현정 기자

‘1%’ 섞는 혼화제 대란에… 레미콘 멈추고 건설현장도 위기

배합 비율 1~2%지만 생산 핵심재 정부대책 고심, 제조사 재고파악 시급 건설경기 침체 속 혼화제까지 대란 대체재 없어 공급난 장기면 생산중단 가격급등·물량부족에 업계 직격탄

제조시 1% 정도만 들어가는 혼화제 대란으로 레미콘 업계 전체에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잠시 휴전에 들어가긴 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불거진 원유 부족 현상이 나프타→에틸렌→혼화제에 순차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레미콘 공급난 심화로 이어지고 이로인해 자칫 주택·건설 현장까지 멈출 위기다.

8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레미콘(REMICON) 제조시 일반적인 배합 비율은 자갈, 모래 등 골재가 70~75%, 시멘트가 10~15%, 물이 5~10% 그리고 혼화제가 1~2% 정도 들어간다. 혼화제 배합 비율은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대외 비로 관리하고 있다. 노하우인 셈이다.

레미콘의 부피 단위인 1루베(1m³)당 들어가는 혼화제 양은 4kg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갈의 강도가 높고 모래의 불순물이 적어 골재의 품질이 우수했던 과거에는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혼화제는 콘크리트를 훨씬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균열도 적어진다. 게다가 빨리 굳는 것을 조절해 레미콘을 좀더 먼 곳까지 운반하거나 높



7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믹서트럭이 보이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레미콘의 핵심 원료인 ‘혼화제’ 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뉴시스

은 곳까지 나를 수 있어 작업성도 좋아진다.

혼화제는 ‘석유화학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나프타에서 출발한다. 원유를 증류하면 투명한 액체인 나프타가 나오고 이를 고온에서 분해하면 가장 먼저 기체 상태인 에틸렌을 얻을 수 있다. ‘고성능 감수제’라고도 하는 혼화제는 에틸렌을 산화시키는 등 화학반응과 제조 과정을 거쳐 생산한다. 나프타가 밀가루라면 에틸렌은 반죽, 혼화제는 국수인 셈이다.

경제 데이터 플랫폼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당시 톤(t)당 484.63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은 이달 6일 현재 1010.5달러로 2배 넘게 폭등했다.

나프타는 혼화제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장재, 단열재, 스티로폼(EPS), 우레탄 등 주요 건축재를 만들때 쓰이는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등을 만드는 데도 요긴하게 쓰인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줄고 나프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혼화제 역시 kg당 20~30% 정도씩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혼화제를 10t씩 거래하고 있다.

문제는 부족할 것을 대비해 더 높은 값을 쳐줘도 공급이 딸리면서 혼화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수의 레미콘 회사 관계자는 “레미콘 회사들마다 혼화제 보유 수준은 조금

씩 다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면 4월말이나 5월초에는 바닥나 레미콘 제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혼화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혼화제 부족 현상에 대해선 현재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가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업계는 혼화제 제조사들의 재고 수준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없어서 못보는 것인지, 좀더 높은 가격을 받기위해 있어도 내놓지 않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화제 제조사로는 국내에선 실크로드 시멘티가 가장 규모가 크다. 국내의 경우 충남 아산, 제주에 각각 혼화제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실크로드시멘티는 지난해 기준으로 169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가뜩이나 전방 산업인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미콘 회사들이 제조시 1% 정도가 들어가는 혼화제 부족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연간 1536만 루베(m³)의 레미콘 생산능력(하루 8시간, 250일 기준)을 갖추고 있는 유진기업의 경우 지난해 가동률이 33.3%에 그칠 정도로 업황이 좋지 않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HD현대

협력사 원재료난 지원

에틸렌 공급에 금융 뒷받침

HD현대는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기반 원재료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지자, 중소 협력사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건조 핵심 원재료인 에틸렌과 도료 원료 수급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선박 강재 절단에 쓰이는 에틸렌은 HD현대케미칼을 통해 2000톤을 확보해 협력사 요청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도료의 핵심 원료인 자일렌 등도 HD현대오일뱅크를 통해 협력사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HD현대는 협력사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정책금융과 연계해 조선, 건설기계, 전력기기 사업 관련 협력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은 협력사가 담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원재료 확보 등 유동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김명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대표(왼쪽)가 김성준 오토헨즈 대표와 지난 7일 서울 구로지타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라솔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모빌리티 혜택 확대

중고차 할인 서비스 강화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오토헨즈와 손잡고 고객들에게 중고차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코라솔)은 지난 7일 오토헨즈와 고객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토헨즈는 중고차매매 플랫폼 오토인사이드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차량 매입부터 상품화·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신뢰도 높은 중고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코라솔 가입 고객은 오토인사이드를 이용해 중고차 구매 시 최대 3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판매 시에도 최대 30만원의 추가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양사는 또 오토헨즈와 연계한 코라솔 전용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코라솔은 오토헨즈와 협력을 통해 기존 건강·생활 중심의 라이프케어 서비스 범위를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대하고, 고객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김승호 기자

나프타 급등에 반짝 흑자… 석화업계 ‘래깅 착시’

저가 원료 투입에 일시적 마진 개선 유가 하락 땀 고가 원료 부담 확대 실적 회복보다 수익성 변동 우려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플라스틱·섬유 등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석유화학업계의 단기 수익성도 일부 개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월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한 나프타가 지난달 공정에 대거 투입되며 래깅 효과가 반영되면서다. 다만 이를 본격적인 실적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란전쟁 종료 시 유가 하락으로 제품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여천NCC

가격이 먼저 떨어질 수 있고, 분쟁이 이어져도 고가 원료가 순차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면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 유가와 나프타 가격 상승에도 일부 석유화학업체는 중동전 이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한 나프타가 지난달 공정에 투입되면서 단기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화학 공정은 원료인 나프타를 매입한 뒤 실제 생산에 투입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이달 판매되는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확보한 나프타 가격이 반영된다. 반면 제품 가격은 최근 시황 상승분을 따라가면서 마진이 일시적으로 확

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증권가도 래깅 효과가 실제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이 3월 래깅 효과 등에 힘입어 636억원 수준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쟁이 끝나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돼 유가와 나프타 가격이 급락하면 제품 가격도 빠르게 내려가지만 이번 달 비싸게 매입한 나프타는 다음 달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원관희 기자 wkh@

개방형 혁신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

중기부, ‘모두의 챌린지 방산’ 출범

정부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방위산업 분야 진출 지원에 본격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방부와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모두의 챌린지 방산(방산 챌린지)’ 출범식을 가졌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같은 민간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많아지면서 스타트업이 방산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된 군 정보, 부족한 실증 기회 등이 방산 생태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중기부와 국방부는 지난 2월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공개하고 민간의 국방 기술 개발 참여를 늘리고자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속조치로 마련된 방산 챌린지는 군·수요 기반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스타트업과의 매칭 및 기술실증(PoC), 사업화 연계 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방산 챌린지는 군 제의 과제인 탑다운(Top-down)과 창업기업 제안 기술인 바텀업(Bottom-up) 방식을 고려해 총 10개 과제를 뽑았다.

/김승호 기자

외국전문·숙련기능인력 비자추천 상시 운영

중진공, E-7-1 27개 직종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신청·접수를 상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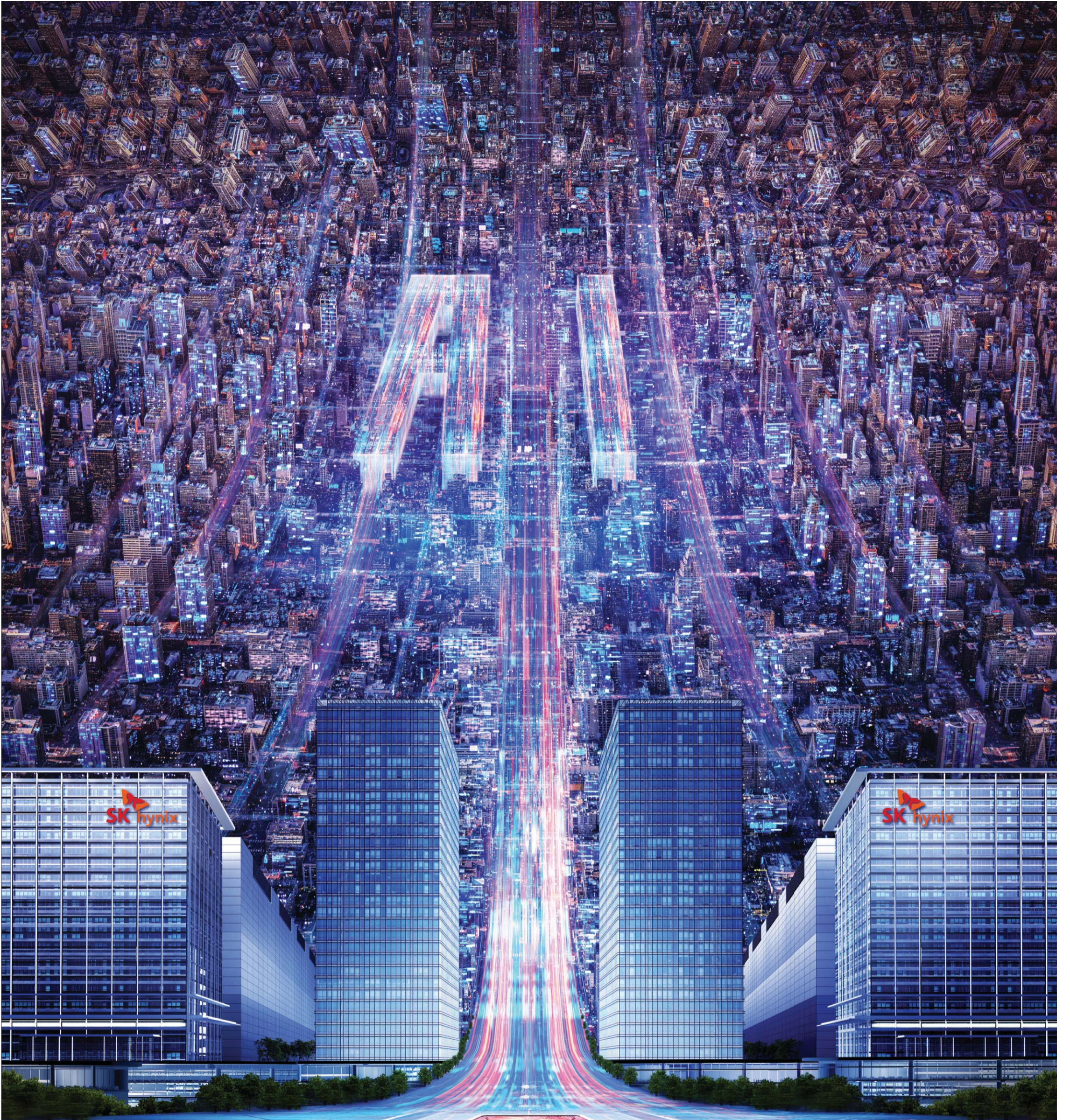
8일 중진공에 따르면 E-7-1 고용추천은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부 고용추천 대상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 D-10)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공고 기준 27개 직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장 요건으로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금요건(연 3112만원 이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E-7-1 고용추천 직종을 기존 24개에서 해외영업원, 상품기획전문가, 조사전문가를 추가해 총 27개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기획·조사 분야 인력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E-7-4 전환추천은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선발계획에 따라 제조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승호 기자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LG U+, 1100만명 유심 전면 교체... 외부추적 가능성 차단

오는 13일부터 교체·업데이트 시행 식별번호 체계, 난수 기반으로 전환 업데이트·매장 방문으로 교체 가능 연락처·티머니 잔액 등 백업해야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실제 전화번호 일부가 포함된 구조로 인해 위치 추적 등 보안 우려가 제기되자 LG유플러스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와 무상 교체에 착수했다.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식별번호 체계를 난수 기반으로 전환해 외부 추적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대응으로, 예약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8일 LG유플러스는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사전 방문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생성 과정에서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일부 포함돼 개인정보 노출 및 위치 추적 등 보안 우려가 제기



LG유플러스 직원이 U+one 앱 내 매장 방문 예약 안내 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된 데 따른 대응이다.

무상 교체 대상은 스마트워치 등 세컨드 디바이스와 알뜰폰(MVNO) 이용자를 포함한 약 1100만 명에 달하며, 실제 교체 및 업데이트 업무는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가입자 식별번호 방식은 2011년 4세대 이동통신(LTE) 도입 초기부터 가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때

실제 전화번호를 조합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통상적으로 타 통신사가 난수값을 사용해 제3자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게 설계하는 것과 달리, LG유플러스의 방식은 이론적으로 가짜 기지국 장비를 활용해 특정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스톱킹 범죄나 주요 인사의 동선 파악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가 확산하자, LG유플러스는 식별번호를 무작위 숫자로 재배분해 외부에서 가입자 정보를 추적할 수 없도록 방어벽을 높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IMSI 단일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가 확인되거나 유출돼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여러 키와 인증단계가 결합해야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단일 정보만으로는 결제, 도청, 감시 등의 실질적 위험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객은 본인의 유심 종류와 단말 상태에 따라 온라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실물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객은 요일에 관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U+one'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노후 유심이나 자급제 단말기, eSIM 사용자 등은 매장 방문을 통한 실물 교체가 필수적이다.

매장 방문을 원하는 고객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8일부터 사전 예약을 신

청해야 하며,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명의자와 대리인 모두의 실물 신분증과 해당 단말기를 모두 지참해야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유심을 교체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연락처 등 대부분의 앱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유심 자체에 저장된 연락처나 선불형 교통카드인 티머니 잔액 등은 미리 백업하거나 별도의 환불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인증서와 PASS 앱 등 보안이 중요한 일부 서비스 역시 교체 후 재등록 과정이 필요하다.

이재원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부사장)은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과 현장 운영 체계를 함께 준비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SKT, AI로 벚꽃 축제 트래픽 폭증 해결

석촌호수·여의도 등 주요지역서 진행 이전 주말비 데이터 사용량 1.5배 ↑ '스파이더' 'A-One' 시스템 등 적용

SK텔레콤은 벚꽃 축제 기간 인공지능(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통신 서비스 제공은 석촌호수와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SK텔레콤은 AI 기반 선제 대응 체계를 통해 통신 장애 없이 서비스를 운영했다.

지난 주말 축제 지역에서 사용된 모바일 데이터는 총 44.9TB로, 이전 주말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트래픽이 가장 많았던 날은 4일로, 석촌호수 15.91TB, 여의도 7.3TB를 기록했으며, 여의도는 5일에 8.5TB로 더 높은 사용량을 보였다.



SK텔레콤 직원들이 스파이더를 통해 벚꽃 축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SKT

연령대별 방문 비중은 50대 이상이 31%로 가장 높았고, 데이터 사용 비중은 2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주요 트래픽 발생 앱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페이스북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운영에는 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 '스파이더'가 적용됐다. 해

당 시스템은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 관제하고 알람 및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A-One'과 연계해 트래픽 증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김서현 기자

통신3사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

과기부, 요금제 개편 방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데이터 중심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든 LTE·5G 요금제에 별도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메신저와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통신비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고령층 대상 혜택도 확대된다. 만 65

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가 기본 제공되며, 기존 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추가 제공이 이뤄진다. 약 140만 명이 대상이다.

요금제 구조도 단순화된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전체 요금제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2만 원대 5G 요금제도 신설된다. 연령별 혜택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데이터 접근권을 기본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반기 내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웨이브 '마스터스 토너먼트' 전 라운드 생중계

웨이브는 골프 메이저 대회 '2026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전 라운드 생중계한다고 8일 밝혔다.

대회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웨이브는 개막 이벤트인 '파3 콘 테스트'를 시작으로 1라운드부터 시상식까지 전 일정을 중계할 예정이다.

올해로 90회를 맞는 마스터스는 초청 선수만 출전하는 대회로,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이 수여된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와 김시우가 출전한다.

웨이브는 모바일, PC, 스마트TV 등 다양한 기기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환경을 구축했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약 20년 만에 '연관 검색어' 종료

AI 중심 검색 체계로 전환

네이버가 약 20년간 운영해 온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이달 말 종료하고 AI 중심 검색 체계로 전환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통합검색 결과 상단에서 제공해 온 연관 검색어 기능을 오는 30일 중단한다. 2000년대 중반 도입된 해당 기능은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확장하고 추가 탐색을 유도하는 보조 검색 도구로 활용돼 왔다.

연관 검색어는 특정 키워드 입력 시 관련 주제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이용자가 '한국'을 검색하면 '한국 축구', '한국 시간' 등 파생 키워드를 제공해 검색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형화된 키워드 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 개인화 추천으로 전환한다. '함께 많이 찾는', '함께 보면 좋은' 등 이용자의 관심사와 맥락을 반영한 AI 추천 기능을 중심으로 검색 경험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2분기 중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 'AI탭'을 출시해 검색 방식을 전면 재편한다. 기존 연관 검색어가 담당하던 탐색 기능은 AI 추천 및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대체될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의 의도와 맥락에 맞는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AI와 검색의 결합을 지속 강화해 신뢰도 높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SOOP, 스포츠 라이브 플랫폼 경쟁력 확대

'OGFC vs 수원삼성 레전드' 중계

SOOP이 오는 19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OGFC vs 수원삼성 레전드' 매치를 실시간 생중계한다.

이번 매치는 박지성, 리오 퍼디난드, 라이언 깁스, 에드윈 반 데 사르 등이 포함된 OGFC와 서정원, 염기훈, 고종수 등이 나서는 수원삼성 레전드 팀의 맞대결이다. OGFC는 선수단 전성기 시절의 커리어 하이 승률인 73% 돌파를 목표로 내걸었고, 이번 경기는 그 도전의 출발점이다.

중계 채널은 MBC와 스포츠2 유튜브 채널로도 확대되지만, 유튜브는 10분 지연 송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중 무지연으로 경기를 볼 수 있는 곳은 SOOP이 유일하다는 점이 이번 중계의 핵심 포인트로 꼽힌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SOOP은 플랫폼 개방성도 함께 앞세



왔다. 스트리머 누구나 해당 경기를 자유롭게 코스트리밍할 수 있어, 각기 다른 해설과 반응을 얻은 다채로운 중계가 동시에 가능하다. 경기 당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일부 구역에는 'SOOP ZONE'도 마련해 스트리머들의 현장 라이브와 모바일 방송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중계는 SOOP이 실시간 스포츠 라이브와 참여형 시청 경험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최빛나 기자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투자 열기... 간접투자 시장 '들썩'

6월 상장 목표, 약 750억 달러 공모 ETF·펀드 등 간접 투자 확대 우주 산업 전반 투자심리 자극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공모가 글로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직접 투자 기회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간접 투자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오는 6월 상장을 목표로 약 750억달러(약 113조원) 규모의 공모를 추진 중이다. 주관사는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이 맡았으며, 미국을 비롯해 영국·독일·프랑스·일본·호주 등 10여개국에서 투자자 모집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IPO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개인 투자자에게 최대 30% 이상을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상장 이후 예상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스페이스X 발사를 계기로 우주 산업 투자 기대가 확산되며, 국내에서는 ETF를 통한 간접 투자 자금이 함께 관심이 끌어올려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

시가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로, 글로벌 증시 시총 상위권 진입이 유력하다. 일부 외신에서는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미래셋그룹이 공모주 일부를 확보할 경우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의 직접 접근성이 제한적인 만큼, 자금은 이미 간접 투자 시장으로 선제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ETF와 공모펀드를 앞세워 스페이스X 상장 이전부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스페이스

X 상장을 염두에 둔 ETF와 공모펀드는 이미 7개 이상이 출시됐고, 추가 상품도 잇따라 대기 중이다.

이달 중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 우주항공TOP10 ETF'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를 선보일 예정이다. 두 상품 모두 우주 산업 전반에 투자하면서 향후 스페이스X 편입을 고려한 구조다. KB자산운용 역시 우주항공 관련 상품 출시를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상장 전부터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스페이스X 직접 편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은 우주항공 ETF와 펀드를 통해 '상장 이전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 하나자산운용의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는 초기 100억원 규모에서 최근 6000억원대로 급증했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우주항공 ETF'도 상장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2922억원이 유입됐다.

성과 측면에서는 한화자산운용의 'PLUS 우주항공&UAMETF'가 두드러진다. 상장 이후 수익률 340.57%로 관

련 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냈고, 순자산도 3041억원까지 커졌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UH)'은 순자산 4930억원, 누적 수익률 약 217%를 기록했고,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ETF'도 순자산 4094억원, 수익률 125.90%로 뒤를 이었다.

운용사들이 앞다퉀 관련 상품을 내놓는 배경에는 스페이스X 상장이 하나의 이벤트를 넘어 우주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아직 상장하지 않은 단일 기업을 겨냥해 상품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시장에서는 그만큼 스페이스X의 상징성과 흡인력이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승진 하나증권 연구원은 "우주항공 산업은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매출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며 "스페이스X 상장 기대와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증권사 '호실적' 예고에도 잔치는 대형사만

1분기 거래대금 67조... 80% 급증 중소형사 강한 리테일·IB 등도 흡수

증시 호황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호실적이 예고됐지만, 운기는 대형사로 집중되고 있다. 대형사가 자본력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흡수하면서, 중소형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NXT)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6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인 36조9000억원 대비 약 80% 증가한 수준이다.

코스피는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5000선까지 밀리면서 리스크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난 3월에도 일평균 거래대금 69조원을 기록하면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전경.

/메트로DB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지수의 방향이 중요하겠으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회전율 상승과 개인 투자자 참여 확대가 동반되며 거래대금이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거래대금 급증은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미래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

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5개 증권사의 2026년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3조279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65.4%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미래셋증권은 올해 1분기 순이익(지배주주 기준)이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면서, 1분기만에 '1조 클럽'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기존 시장 전망치를 30% 이상 상회하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

하지만 거래대금 확대에도 증권업 내 자기자본규모별 양극화는 심화되는 분위기다. 대형사들은 브랜드성과 자본을 기반으로 한 리테일뿐만 아니라 기업금융(IB), 기업공개(IPO) 운용, 해외 시장 구축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중소형사들이 기존에 잘하고 있던 메자닌(CB·BW), 중소형 인수·합병(M&A) 등 IB 부문도 사실상 대형사가 흡수하고 있는 구조다.

/신하은 기자 godhe@

리테일 강화 나선 한양證... 투자자금 증가

개인연금 계좌 수 80배 늘어 성과

한양증권이 리테일 비즈니스 구조를 재편하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특정 부문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고객 수요에 맞춘 리테일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연금 고객 계좌 수가 1년 만에 8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객 밀착 관리·디지털 경쟁력 강화로 리테일 체질 개선

리테일 전략은 '밀착 관리'와 '디지털

강화'의 투트랙으로 요약된다. 한양증권은 최근 '파이낸셜 매니저(FM)' 제도를 도입해 고객별 전담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고도화를 통해 거래 편의성과 고객 접점을 높이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규 고객 유입 확대와 기존 고객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연금 성과도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연금저축 계좌 수는 대주주 변경 이후 80배 이상 증가했으며, 위탁계좌 규모도 함께 확대됐다.

주요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반투자신탁 계좌 수는 30% 이상

증가했고, 실제 투자 자금이 유입된 계좌 수는 60% 이상 늘었다. 단순 계좌 개설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다.

상품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지난해 대주주 변경 이후 금융 상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이 조직은 최근 창사이래 처음으로 특판 RP(환매조건부채권)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연 3.5%(세전, 28일 만기)의 금리를 제공하며 단기 자금 운용 수요를 겨냥했다.

아울러 기관 영업을 강화해 안정적인 자금 유입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리테일 영업 직원 대상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영업 경쟁력도 높이고 있다.

/신하은 기자

법인 자금 몰린 NH IMA... 수익성 입증

법인 투자 비중 55%... 개인 넘어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완판된 첫 번째 IMA 상품 'N2 IMA1 중기형 1호'의 투자자 구성과 자산 유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 비중이 55%, 신규 유입 자산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판매금액 기준 법인 투자자가 55%로 개인 투자자 45%를 상회했다. 일반적으로 개인 중심인 리테일 금융상품과 달리, 투자 판단이 까다로운 법인 여유 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IMA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시장 환경 변화와 맞물린 결과다. 글로벌 관세 갈등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중위험 중수익의 안정적인 투자 니즈가 있는 법인 유동자금이 IMA로 이동한 것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이 강점을 보유한 기업금융(IB)를 통해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

고, 이를 엄격히 선별·검증한 자산에 한해 운용하는 구조와 역량이 법인투자자의 관심과 신뢰를 상대적으로 높게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2%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연 4.0% 기준수익률과 추가 성과에 따른 추가수익, 원금 지급 약정 구조를 갖춘 IMA가 대안 투자처로 부각됐다.

또한 이번 모집에서는 전체 판매금액의 약 60%가 타 금융기관에서 유입된 신규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자산 운용의 중심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번 결과는 NH투자증권의 검증된 역량이 뒷받침된 결과이기도 하다. NH투자증권은 IMA 사업자 중 유일한 A+A+ 신용등급(한국기업평가, 2026년 4월 6일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ECM(주식발행)·DCM(채권발행) 부문 모두에서 업계 최상위권 실적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쌓아온 발행어음 운용 노하우와 NH농협금융지주 핵심 계열사로서의 견고한 자본력은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토대가 됐다.

/허정윤 기자

회계사 정책 참여 확대... 실무교육 강화

한국공인회계사회 리더십 캠프 개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의 정책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8일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 2학기 과정을 지난 2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제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1기 과정이 시작돼 1학기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두 달간 2학기 과정이 진행된다.

2학기 과정에는 국회의원과 정치권 실링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는 정치 환경과 선거 전략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 선택과 정치인의 역할, 정치 지형 변화와 지방선거 전망, 유권자 설득을 위한 연설 기법 등이다.

/허정윤 기자

중남미가 기회의 땅... K-방산, 수출 200억달러 '정조준'

코트라, '칠레 FIDAE' 한국관 운영 국경 분쟁·치안·해양안보 수요 확대 한화·기아 등 기업 첨단 장비 전시 현지화·공동생산 중심 협력 확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연간 수출 200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쌓기 위해 지구 반대편 중남미 대륙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는 7일~12일까지 칠레 산티아고 공항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항공·방산 전시회인 'FIDAE 2026'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출 지원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60% 증가한 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200억달러 달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은 2022년 173억달러다. 주목할 점은 수출국인데, 2022년 7개국에 불과했던 수출국은 지난해 16개국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그 중심에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현지시간 7일~12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중남미 최대 항공·방산 전시회인 'FIDAE 2026'에 K-방산 31개사, 공관 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 한국관을 운영하는 가운데, 한국 방산 기업 관계자가 칠레 군 고위 관계자에게 제품의 기술력을 설명하고 있다. /코트라

중남미 시장은 현재 기회의 땅이다. 항공기 및 해군 무기체계의 평균 연식이 45년에 달해 군 현대화 수요가 한계치에 다다른 데다, 최근 국경 분쟁과 치안 강화,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수요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미국·유럽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한국을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롤모델'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서 K-방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번 FIDAE 2026 한국관에는 국내 방산 중소·중견기업 31개가 참여해 역대급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3개국 377개사가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민관 방산 관계자 12만 명이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

화오션, 한화시스템이 독립 부스를 통해 'TIGON 6x6' 장갑차 실물을 전시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아는 차세대 전술 차량을, 풍산은 정밀 탄약 체계를 선보였으며, 한컴인스페이스와 에스아이아이에스는 위성 및 우주 기술을 통해 한국 방산의 영역이 우주까지 확장됐음을 증명했다.

K-방산의 중남미 진출은 꽤나 오래됐고 다양하다. 페루의 경우 G2G 계약으로 순찰차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군함과 경비함 현지 공동 건조, 잠수함 설계 용역 수주에 이어 K2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수출계약, 공동생산 및 현지화 등 다양한 협력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군 수송기 날개 구조물과 항공기 부품을 공급해 왔고, 칠레에는 2023년 양국 간 국방 협정 체결 후 경전술 차량과 군용차량 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콜롬비아는 대함미사일 수출에 이어 미사일 발사 시스템 수출 성과도 거뒀다. 이외 중남미 각국과 전술 차량, 안티드론, 잠수함, 함정, 미사일 등 공급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코트라는 이번 한국관 쇼케이스와 칠레 등 중남미 군·정부 조달관 초청 B2B

상담회에서 파악한 수요를 프로젝트화해 민관 합동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시회 기간 중 '중남미 방산수출협의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전략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현지화 및 공동생산을 선호하는 점, 입찰이 스페인어로 진행되고, 정부조달관의 잦은 교체로 프로젝트 지연이 빈번한 점 등을 들며, 전문 인력 확보 및 지속적 시장 접근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칠레 및 중남미 군, 방산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 방산의 날 (Korea Defense Day 2026)'도 열어 협력 기회를 넓혔다.

장성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중남미 방산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중남미에서 한국은 방위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 방산 공급처 다변화에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며 "많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로비 관련법 등으로 민간기업의 군 면담이 제한적인 만큼 민관 원팀을 긴밀히 가동해 방산 수출 확대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포괄임금제도 손질... 임금체불 기준 강화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사업장 제도개선 컨설팅 지원 익명 신고센터·기획감독 추진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우선 포괄임금제나 고정 OT(Overtime) 약정을 체결했다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 원칙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고정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정해둔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수당 항목을 통합해 산정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지침 시행과 함께 강력한 사후 관리와 감독에 나선다. 특히 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간주하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된 사업장은 향후 기획 감독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또한, 임금대장 작성 등 기초노

동질서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을 활용한 사업장들을 위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법상의 특례 제도를 활용을 권고했다.

자체적인 임금 체계 개편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 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공공데이터 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고품질데이터 개방 등 인정 받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해당 평가는 전국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8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이번 평가에서 97.04점을 기록했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67.6점)와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점수(92.5점)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중점 데이터 적극 개방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서비스 개발 확대 ▲12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달성 등 고품질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활성화 부문에서 노력을 인정 받았다.

지난해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평가에는 인공지능(AI) 시대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또 평가 등급이 기존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에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세분화되는 등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매점매석 의혹 들여다본다... 석유제품 긴급 점검

생산량 전년과 비슷하데 물량 부족 유통단계서 왜곡 없는지 점검 예고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운할유와 선박연료 시장의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들어갔다.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시중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유통 단계에서 왜곡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양기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보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제품 수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욱 산업자원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

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운할유와 선박용 중유의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운할유와 선박연료(선박용 중유)의 가격 상승과 유통 물량 감소로 일부 산업 현장에서 수급 애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인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왜곡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6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

/한돈자조금

한돈자조금, '생생텃밭'서 도농 상생 실천

취약계층에게 농산물 지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농 상생 및 사회공헌 가치' 확산에 나섰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돈 등 먹거리를 지원했다. 텃밭에서 가꾼 농산물은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백혜련 의원(국회 생생텃밭 회장) ▲김정옥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이기흥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조금은 개장식에 참석한 취약계층을 위해 한돈 수제떡갈비 정식으로 만든 새참 200인분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생생텃밭 김장 나눔행사에서는 한돈 100kg과 김장 봉사자를 위한 한돈 수육과 떡국 200인분을 지원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중동 리스크 대응 나선 경북도... 물가·에너지 총력 관리

버스·택시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수출 기업 물류비·보험료 지원 확대
석유 불법유통·가격 점검 강화



경북도는 지난 7일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 대응 분야별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경북도

경북도는 지난 7일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 대응 분야별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물가·고유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수출입 물류 차질이 이어지면서 민생과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회의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과 유가 급등에 대응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 애로 해소와 민생 안정, 에너지 공급 대응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강조됐다.

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버스·택시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4월 중 소득 하위 70% 등을 대상으로 총 4207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

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물가 모니터링 요원 141명을 투입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생필품 가격 점검을 강화하고 축제장 바가지요금 관리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동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171개 기업을 대상

으로 물류비 지원 한도를 업체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험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물류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세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경북버팀금융 우대 지원을 통해 자금난 완화

에도 나선다.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석유제품 불법유통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준수 여부를 지속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해 에너지 절감과 수급 안정에 대응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와 농업용 자재, 축산 사료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어업인에게는 25억 8000만원 규모의 면세유를 긴급 지원한다. 섬 지역 주민의 운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한 상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민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AI선박기자재 지원센터 구축

울산에 인공지능(AI) 선박기자재 실증 기반을 갖춘 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울산시는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도 조선해양설비 신규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서 'AI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총사업비 382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울산미포국가 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약 2640㎡ 부지에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울산과학기술원이 주관하고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전문 기술 지원 체계로 운영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경주시

'경주페이'로 택시 결제 가능

경주시는 택시요금 결제 수단에 지역화폐 '경주페이'를 도입해 시민 편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28일 0시부터 시행되며, 지역 내 개인·법인택시 1,065대 전체에 적용된다.

시는 택시 내 경주페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차량을 가맹점으로 등록해 이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과 카드 중심이던 기존 결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 결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도, '피지컬 AI 혁신' 거점 만든다

산·학·연·관 전문가 모여 자문회의
AI·SMR 중점... 2030년 3조 투입

경남도가 2030년까지 총 3조원을 들여 경남을 '글로벌 피지컬 인공지능(AI)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본격화한다.

박완수 지사는 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경남은 원전·방산·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AI와 SMR을 핵심 축으로 산업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부 주제 발표와 2부 자문·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경남형 AI산업 육성 추진 방안과 핵심 유망 산업 육성 방안이 공유됐으며 '피지컬 AI가 여는 제조의 미래, 경남의 도전'을 주제로 한 기초 발제도

이어졌다.

2부에선 산·학·연·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해 제조 피지컬 AI 산업 메카 조성 방안, 중소·중견기업의 AI 전환(AI) 정책 방향, 전후방 산업 연계 방안 등을 놓고 심층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경남이 우주항공·방산·조선·원전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제조업 중심지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으면서도,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증 인프라 지원과 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 등 '현장 자동형'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완수 지사는 "기계·부품·소재 중심의 제조업이 밀집한 경남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충청남도 재난안전상황실 종합 모니터링시스템 준공식 모습.

충남도, 재난 대응 통합 플랫폼 완성

CCTV 6만7500대 모니터링 가능

충남도가 도내 약 6만 7500대의 CCTV를 통합해 재난·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입체 파악할 수 있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형·복합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7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준공식을 개최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소방·방재 등 전문 인력 5개 팀 21명이 4교대로 근무하며 재난 초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시군 스마트도시 안전망 4만 3000여 대, 도 산불방지 상황실 150여 대, 국가교통정보센터 2만 4400여 대 등 총 6만 7500여 대의 CCTV를 연계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기상청 기상관측망까지 연동해 상황 인지 범위를 넓혔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노을 따라 걷는 완도... 해안 경관길 조성

대문리 일원서 당인리까지 명소화

완도군이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으로 총 153억 원을 투입한다.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은 완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일원에서 당인리까지 해안도로를 명소화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4개년(2024~2027)간 추진하며, 1단계는 '일몰 아트 공원', 2단계는 '갯바람 공원과 미소아트 공원', 3단계

는 '해안 경관길'(노을 전망대)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군은 기본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통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완료 후 지난해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83억 원을 투입, 1단계 사업인 '일몰 아트 공원'에 노을과 일몰 이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썬셋 머무름당'과 전망 공간, 포토존, 스마트 망원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고 해안 조망을 고려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 금융중심지 도약 투자설명회 성료

여의도서 수도권 금융기업 유치

부산시가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7일 오후 4시 20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 소재 자산 운용사, 벤처 캐피탈, 금융 기술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초청됐다. 설명회는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와 BIFC 1단계 63층에 조성한 금융 혁신 거점 '디스페이스(D-space)'로 수도권 금융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소개

▲국민성장펀드 및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안내 ▲해양 금융 특화 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의 부산 진출 사례 소개 ▲부산 금융 중심지 소개 및 투자 특전 ▲기업별 현장 목소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규제 특례 혜택을 중점 소개했다. 지역 기업 성장과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부산형 3대 혁신 모펀드',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안내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사천시가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경제 위기에 대응해 '사천사랑상품권 특별 프로모션'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1인당 구매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2026년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예정 규모는 총 200억원이며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관내 4997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울주군

명선도에 해상보행교 설치

야간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울산 울주군 명선도에 해상보행교가 들어선다.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 있는 명선도는 2022년 7월 야간조명 설치 이후 형형색색의 조명과 미디어 아트로 큰 인기를 끌면서 야간에만 22만여 명이 다녀갔다.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상시 입도가 어렵고 관광객 동선 정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시설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제로클릭 소비’ 부상... 유통업계, AI 추천 쇼핑에 승부수

검색 대신 대화형 추천이 대세 AI 플랫폼 연동 경쟁 본격화 추천부터 구매까지 원스톱 진화 챗GPT·제미니이 협업 확대 초기 한계에도 시장 선점 경쟁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검색’을 대체하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식품·유통업계가 새로운 ‘쇼핑 관문’ 선점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찾는 경로가 포털의 키워드 검색에서 AI 추천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들도 AI 플랫폼 입점과 서비스 연동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통·식품 기업들은 AI 플랫폼 입점을 검토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AI와 연동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실제로 AI 플랫폼 이용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OpenAI의 생성형 AI 서비스 ChatGPT의 지난달 월간활성사용자(MAU)는 1533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구글의 AI 서비스 Google Gemini 역시 이용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Chat GPT로 생성한 소비자가 상품을 찾는 경로가 포털의 키워드 검색에서 AI 추천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AI 플랫폼 입점과 서비스 연동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신세계그룹은 오픈AI와 협력해 AI 쇼핑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마트 앱에 챗GPT 기반 기능을 탑재해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향후에는 대화창 안에서 검색부터 결제 배송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AI 커머스’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카카오톡 ChatGPT 기

반 ‘더현대 하이’를 선보였다. 소비자가 ‘향수를 좋아하는 어머니 어버이날 선물로 뭐가 좋을까?’와 같은 질문을 하면 AI가 맞춤 상품을 추천하고 구매까지 연결하는 식이다.

롯데그룹은 이달부터 구글 제미니와 협업한 AI 서비스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AI 쇼핑 에이전트인

‘하비’의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용자가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원하는 상품을 찾아주고 비교·추천까지 지원하는 AI 기반 쇼핑 서비스다.

롯데온은 지난 1일 제미니를 활용한 쇼핑 AI인 ‘패션AI’를 출시했다. 사용자가 입력한 스타일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해 상품을 추천한다.

롯데하이마트와 G마켓도 가전 특화형과 알리바바 AI 기반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다. 롯데웰푸드와 롯데홈쇼핑은 챗GPT에 브랜드를 노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네이버도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쇼핑 AI 에이전트’를 배치하며 채팅형 추천 기능을 강화했다. 블로그, 쇼핑 리뷰 등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정보 요약과 비교, 리뷰 분석을 제공한다.

이외에 올리브영, 무신사 등은 ‘챗GPT 포카카오’ 내 카카오톡과 연동해 AI 추천 기반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이같은 변화는 ‘제로클릭(Zero-click)’ 소비 패턴으로 설명된다. 사용자가 여러 번 검색하고 비교하는 대신 AI에게 조건을 설명하면 탐색과 비교, 추천이 한 번에 이뤄지는 방식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한계도 분명하

다. 결제 기능이 없어 외부 앱으로 이동해야 하고, 답변 속도가 느리거나 결과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검색 기반 쇼핑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도 변수다.

그럼에도 업계는 AI 기반 유통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50·60대 ‘영올드(Young Old)’ 세대까지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아지면서, AI를 통한 편의성 개선이 충성 고객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NS홈쇼핑은 시니어 맞춤 UI로 개편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가상 피팅 등 초개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KT알파는 AI 가상 모델을 활용한 쇼핑 콘텐츠를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검색의 시대가 저물고 대화형 추천의 시대가 열리면서 기업들의 AI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며 “지금은 불안정하고 초기 단계이지만, 1~2년 내 AI가 온라인 쇼핑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아마존 ‘빅 스프링 세일’서 매출 3배 성장

일리운·미장센, 주요 부문 상위권 차지 라보에이치·에스쁘아 등 브랜드 약진 신규 고객 유입 확대, 북미 공략 강화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브랜드들이 아마존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빅 스프링 세일’에서 전년 대비 3배 넘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빅 스프링 세일’은 프라이데이 및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아마존의 최대 쇼핑 행사로 꼽힌다. 지난달 25일부터 7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이 201% 성장하며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다.

무엇보다 일리운과 미장센이 높은 성



미장센 퍼펙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장세 달성 및 카테고리 상위권 등극에 성공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전년 대비 384% 성장한 일리운의 경우 대표 제품인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이 4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아마

존 페이스럴 모이스처라이저 부문 3위에 올랐다. 미장센 역시 237% 성장하며 ‘퍼펙트 세럼’이 헤어 스타일링 오일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 카테고리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번 성과는 북미 현지에 공식 진출하지 않은 브랜드들이 거둔 유의미한 실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모레퍼시픽은 피부과 전문의 및 여러 지역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고, 소셜 미디어 중심의 정교한 타겟팅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라보에이치가 8149%라는 기록적인 신장률을 보였으며 에스쁘아가 191%, 아윤체가 208%, 룽테이크가 347% 성장하는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들이 동반 성장했다. 오설록 또한 ‘삼다꿀베티’가 프루티 티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뷰티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확장성도 확인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미국 현지 고객의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고기능성 K뷰티 제품군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기회였다. 대규모 행사 전 신규 고객 유입이 크게 늘어난 점이 특히 고무적”이라며 “이번 성과를 통해 얻은 고객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연중 최대 행사인 6월 ‘아마존 프라이데이’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욱 확고히 굳히고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형하 기자 mlee236@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크러시’ 국내 첫 귀리 맥아 라이트맥주 선보여

롯데칠성음료가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 크러시’를 국내 최초 귀리 맥아를 첨가한 라이트 맥주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리뉴얼은 기존 크러시 맥주의 젊고 트렌디한 브랜드 이미지를 라이트 맥주에 맞게 재탄생시킨 것으로, 가벼운 음주를 통한 자기관리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음주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획됐다. 클라우드 크러시는 국내 최초 귀리 맥아 10%를 첨가한 라이트 맥주로 한층 더 깊어진 맥주의 맛을 구현해냈다. 특히 귀리 곡물 특유의 고소함, 고단백과 식이섬유는 맥주 맛의 핵심 요소인 풍미와 바디감을 완성도 있게 끌어올려서 최고의 맛을 선사한다. /신원선 기자

‘TERRA X SON7’으로 성수기 마케팅 강화 애경산업 원씽, 日 온오프라인 공략 확대

TV광고 2주 만에 2000만뷰 흥행

하이트진로는 손흥민을 앞세운 ‘TERRA X SON7’ (사진) 마케팅에 대한 긍정효과에 따라 본격 맥주 성수기에 맞춰 통합 캠페인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출시 7주년을 맞아 신규모델로 손흥민을 선발하고 TV광고 시리즈 두 편을 공개한 후 초기 관심이 높은 분위기에 이어 에디션 제품 출시, 온라인/오프라인 프로모션 시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두 편의 TV광고 시리즈는 ‘리얼탄산 100% 테라와 손흥민의



만남 만으로도 관심이 증가하며 공개 2주만에 2천만뷰(공식 유튜브 채널 기준)를 돌파해 추후 새로운 시리즈의 광고도 공개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도쿄 시부야 무신사 팝업스토어 참가

애경산업은 오는 10~26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열리는 ‘2026 무신사 도쿄 팝업 스토어’에 참가해 원씽 행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원씽은 애경산업의 핵심 성분 스킨케어 브랜드다. 이번 행사에서 나이나신아미드 글루타치온, 병풀추출물, 여성초추출물 등을 활용한 브랜드 대표 제품들을 선보인다. 제품 체험은 물론,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며 일본 현지 소비자와 적극 교류한다는 방침이다.

원씽은 일본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원씽 병풀추출물 토너, 원씽 여성초추출물

토너 등 주요 제품의 누적 판매량은 90만 개를 돌파했다. 특히 원씽 병풀추출물 토너는 2026년 쿠팡 재팬에서 카테고리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원씽은 쿠팡 재팬(2020년), 라쿠텐(2022년), 아마존 재팬(2023년)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 입점해 있다. 로프트, 도큐멘츠, 플라자 등 약 5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원씽 브랜드 관계자는 “이달 4월 병풀추출물 미스트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고 일본 오프라인 채널 입점을 확대하는 등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통해 K뷰티 브랜드로서의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하 기자

나라셀라 바하우 전통성 담은 프리미엄 와인 선보여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 나라셀라(회장 마승철)가 오스트리아 와인 ‘바인굿 크놀(Weingut Knoll)’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출시를 통해 나라셀라는 기존 포트폴리오에 없던 오스트리아 와인을 추가하며 유럽 프리미엄 와인 라인업을 확대하게 됐다.

바인굿 크놀은 오스트리아 바하우(Wachau) 지역에 위치한 와이너리로 18세기부터 약 200년간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그뤼너벨트리너(Gruener Veltliner)와 리슬링(Riesling) 중심의 와인을 생산하며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생산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농심, 러시아 법인으로 '유라시아 라면로드' 선점

오는 6월 모스크바에 설립 계획
 年 10% 성장, 10억弗 규모 예상
 프리미엄 라면시장 집중 공략
 CIS 국가까지 판매망 구축 전략



농심이 유럽에 이어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세우며 유라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류 확산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러시아 라면 시장을 거점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CIS(독립국가연합) 국가까지 아우르는 판매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거점을 확보해 '유라시아 라면 로드'를 선점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농심은 오는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판매법인 '농심 러시아(Nongshim Rus LLC)'를 설립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 유럽 법인을 세운 데 이어 1년여 만에 추가 거점을 확보한 것이다.

시장 성장성도 배경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러시아 라면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0%대 성장이 예상되며, 시장 규모는 약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25년 러시아의 한국 라면 수입액은 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농심은 현지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는 중저가 제품과 달리 200루블 이상 프리미엄 라면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신라면을 중심으로 너구리, 김치라면 등 수요가 검증된 제품과 함께 신라면 톱바, 신라면 김치볶음면 등 신제품도 빠

르게 선보일 방침이다. 프리미엄 제품군을 앞세워 가격 경쟁이 아닌 브랜드 가치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를 거점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서부 지역을 우선 공략하고, 현지 유통 파트너를 통해 중부와 극동 지역까지 판매망을 넓힌다. 이를 위해 러시아 대형 유통 체인 X5, 마그니트 등 오프라인 채널 입점을 확대하고, 오존(Ozon), 와일드베리스 등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에 공식 브랜드관을 구축

할 예정이다. 광활한 영토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접근성 한계를 온라인 채널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제품 공급은 올 하반기 완공 예정인 부산 녹산 수출전용공장에서 담당한다. 농심은 이 공장을 통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는 수출 전용 생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마케팅도 병행한다. 러시아 주요 축제와 연계한 팝업스토어 운영, 현지 SNS '브콘탁테(Vkontakte)' 활용 등 온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러시아 법인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의 허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농심 관계자는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라면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이라며 "러시아 법인을 교두보로 CIS 지역까지 영업망을 확대해 2030년까지 법인 매출 3000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동국제약 '멜라셋 3종'으로 단계별 기미 관리

동국제약이 봄철 기미 관리를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해 단계별 맞춤 솔루션 '멜라셋 3종'을 CJ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점과 온라인몰에서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옅은 기미부터 짙은 기미까지 단계별 맞춤 케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멜라셋 기미 토닝 크림, 멜라셋 기미 토닝 스팟 패치 등 3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멜라셋 3종'은 동국제약의 핵심 성분인 셀렐라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을 바탕으로, 듀얼 멜라퀴논을 비롯해 트라넥사믹애씨드, 글루타티온 등을 함유해 고민 부위 및 피부톤을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멜라셋 기미 토닝 크림 에센스'는 기미와 칙칙한 피부 톤을 균일하고 맑은 피부 톤으로 가꿔 주는 제품이다. '멜라셋 기미 토닝 크림'은 옅은 기미부터 장기간 누적된 짙은 기미까지 관리하는 제품이다.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패치인 '멜라셋 기미 토닝 스팟 패치'는 피부 표면에 드러난 기미 관리용이다. 부착력이 우수한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과 가장자리를 얇게 처리한 베벨링 공법이 적용돼 굴곡진 피부에도 들뜸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와이드 패치와 스팟 패치로 구성돼 볼, 광대, 국소 부위 등 부위별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 제약 특화 AI 전문가 양성

전 임직원 대상 AI 역량강화 교육
 전용 교육장 'AI 아카데미' 구축
 팀별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바이오 제약업종에 특화된 AI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이는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닌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내재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전자 차원의 AI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인천

송도 사옥 내 AI전용 교육장 'AI 아카데미'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임직원들이 상시 관련 교육을 받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교육 과정에 따라, 약 1000여 명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은 4월부터 7월까지 사내 AI 전용 교육장에서 인당 최소 7시간의 AI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

수하고 최신 생성형 AI 활용, 직무별 AI 모델 설계, 업무 자동화 추진 등을 수행한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AI 역량 강화 노력을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모델로 확대하기 위해, AI 전담 부서(AITP) 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각 본부 및 팀별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피플팀장 강대성 상무는 "바이오 산업에서 AI가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통한 임직원들의 역량 향상이 회사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파마리서치 美 로스앤젤레스 '리쥘란코스메틱' 성료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27~29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리쥘란코스메틱'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마리서치의 프리미엄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리쥘란코스메틱'의 미국 세포라 입점을 기념한 것이다. 행사 기간 동안 약 5000여 명의 현지인이 방문했다. 리쥘란 턴오버 앰플 등 주요 제품이 조기 품절되는 등 세포라 내 브랜드 팝업 중에서도 높은 구매 전환율을 기록했다.

팝업 전날인 26일에는 인플루언서 및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사전 행사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평창·베이징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미국 스노보드 선수 클로이 김 등이 참석했다. /이정하 기자

美 메디케어 개편... 셀트리온, 직관·구조적 성장 기회

MA 플랜, 보험사 부담금 2.48%↑ 환자 본인부담 상한 2400弗로 향상 바이오시밀러 선호도 높아질 전망

셀트리온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발표한 '2027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정액 수가 및 Part C, Part D 지급 정책 발표'에 따라 회사의 현지 직관 전략 및 핵심 제품군에 대한 구조적 성장 기회가 마련돼 처방 확대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MA 플랜에 대한 보험사 부담금 증가 ▲환자 본인부담금 상향 ▲환자 의료 이용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 등 바이오시밀러 및 셀트리온의 핵심 치료제인 '집펄트라'(렘시마SC 미국 제품명) 처방 확대에 유리한 정책 변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먼저, 미국 고령층 대상의 공보험(메디케어)을 사보험사에서 대신 운영하는 MA의 경우, 플랜(메디케어-사보험사 결합 상품 등)에 대한 보험사 부담금이 2027년부터 2.48% 증가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가가 낮은 의약품 사용 시 보험사 부담금 규모가 낮아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 역시 2026년 2100달러에서 2027년 2400달러로 높아진다.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만큼,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주력 제품군인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 및 규제 당국의 환자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 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전까지 환자 급여 기준을 단순 질병 코드 위주로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근거를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부담금 지급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정맥주사(IV) 제형 투약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자가투여가 가능한 피하주사(SC) 제형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셀트리온은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현재 미국 현지에서 제품 생산 및 공급, 법인을 통한 직관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가격 경쟁력 및 보험사,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대상 리베이트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세경 기자

GC메디아이 AI 챗봇 '바로바로' 병·의원 운영 안정화

인공지능(AI) 기반 Medical OS 기업 GC메디아이(이하 GC)가 자사 전자의무기록(EMR)인 '의사랑' 이용 고객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챗봇 '바로바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바로바로'는 접근성, 즉시성, 지속성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병·의원 현장에서 진료 중 제품 문의나 장애 발생 시 상담 대기로 인해 업무 흐름이 끊기거나 야간·주말 등 고객센터 운영 공백 시간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의사랑' 화면 내 버튼을 통해 별도의 설치 없이 즉시 실행되며, AI가 질문의도를 분석해 관련 매뉴얼과 해결 방법을 바로 제시한다. 상담 대기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24시간 365일 운영해 진료 외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GC메디아이는 '바로바로'를 단순 상담 도구가 아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Medical OS 기반으로 보고 있다. 챗봇을 통해 축적되는 질문 데이터는 제품 개선과 AI 모델 정교화에 활용되며, 반복 문의는 AI가 처리하고 상담 인력은 고난도 지원에 집중할 수 있어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예약, 접수, 진료, 청구, 경영 등 복잡한 의료 솔루션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의와 장애 대응에 AI를 적용한 첫 사례로, GC메디아이 AI 로드맵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이정하 기자

LOTTERIA™ × 신대방 온정돈까스

디지게 매운 돈까스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ARNING

환자,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 매운맛 섭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ARNING



손보협회-지방재정공제회, 교통안전 캠페인
손해보험협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8일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미디어 벨트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왼쪽)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홈쇼핑, 전북지역 우수상품 국내의 판로 개척
홈쇼핑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함께 전북 지역 우수 상품의 국내의 판로 개척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지난 7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박춘관 이사장, 권진미 홈쇼핑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쇼핑



경보제약,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경보제약은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서울사무소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37001'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왼쪽)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보제약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운영
CJ도너스캠프가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026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CJ도너스캠프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600곳과 문화다양성 교사 600명을 선발해 아동 약 9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꾸려갈 계획이다. /CJ도너스캠프

이노비즈협회 경영자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이노비즈협회가 급변하는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 발맞춰 이노비즈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2026 제4기 차세대 경영자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8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제4기 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연결되며 미래를 만드는 차세대 경영자 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교육 과정은 오는 5월 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판교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 '선혜원' 집결... 미래 전략 점검

SK그룹 창립 73주년

비공개로 '메모리얼 데이' 진행
창업·선대회장 경영 원칙 되새겨

최태원 회장 등 SK 오너 일가와 주요 경영진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였던 '선혜원(鮮惠院)'에 모여 창업·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기며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메모리얼 데이'에는 SK 오너 일가와 주요 경영진 등 40여 명이 참석해 창업·선대회장을 기리고 경영의 기본 원칙을 되짚었다. 추모의 자리인 만큼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선혜원은 1968년부터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이자 개인 연구소로 사용됐으며, 1990년부터는 SK그룹의 인재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쓰여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선혜원'에서 열린 창립 7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혜를 베푼다'는 뜻의 선혜원이라는 이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직접 지었다고 한다.

최종건 창업회장은 생전 "회사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며 "우리의 슬기와 용기로써 뚫지 못하는 난관은 없다"며 빈곤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창업회장은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와 사업보국의 정신을 실천한 기업가다.

창업회장인 형의 유지를 이어받은 최종현 선대회장은 1970년대 서양의 합리적 경영 이론과 동양의 인간 중심 사상을 결합해 SK그룹 고유의 경영관리체계 SKMS(SK Management System)를 정립했다.

평생 인재보국을 실천한 최 선대회

장의 "첫째도 인간, 둘째도 인간, 셋째도 인간"이라는 어록은 세계의 대표적인 인재 경영 철학으로 꼽히며, 오늘날 SK그룹 특유의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됐다.

이런 철학에 따라 최 선대회장은 국내 최초의 기업 연수원인 선경연수원을 설립했고, 회장 결재란과 출퇴근 카드 폐지, 해외 MBA 프로그램 도입 등 임직원 교육과 자율성 보장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두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은 최태원 현 회장에게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됐을 때 "국가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는 등 글로벌 경제협력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SK이노, 사회복지시설 유류비 1억 지원

울산지역 103개 복지시설 배분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울산CLX)는 8일 중등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유류비 1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주유상품권 형태로 울산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소속 42개소, 울산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18개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43개소 등 총 103개 복지시설에 배분된다.

울산CLX와 울산사회복지공동모

금회는 이번 지원이 지역 복지시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원 SK에너지 CLX경영지원실장은 "전 세계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라며 "SK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상생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JW중외제약, 'Her Story' 캠페인 전개

여성 철결핍 질환 인식 개선

JW중외제약은 대한자궁근종선근증학회와 함께 여성 철결핍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Her Story'를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간과되기 쉬운 철결핍 질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궁근종·자궁선근증 환자

에게 동반될 수 있는 철결핍과 철결핍성 빈혈의 조기 진단 및 관리 필요성을 알린다.

JW중외제약과 대한자궁근종선근증학회는 여성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철결핍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의 강연, 디지털 콘텐츠, 환자 대상 교육 자료 배포 등을 선보인다.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인플루언서와도 협업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소진공 지역본부,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전상연 등 표창장·감사패 전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직원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지회로부터 표창장과 감사패를 각각 받았다.

8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상연은 전

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공단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소공연 대전지회는 소진공 음성센터 임철주 과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앞줄 가운데)이 '지역거점별 국민성장펀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

산은, '국민성장펀드 설명회' 마무리

운용방안 소개 등 이해도 높여
박상진 회장 "국토균형 발전 기여"

한국산업은행은 부산에서 '지역거점별 국민성장펀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동남권 지역 첨단산업 영위 기업들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은은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소개 후 지역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 지자체 및 지역상의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은은 지난 3월 12일 충청·호남권

업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오늘 동남권 지역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지역 설명회를 완료했다.

박상진산은회장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의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경인사무소장 황태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진 △국립한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박정민

부음

- ▲김선교씨 별세, 김형조(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장)·민경(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전무)씨 부친상, 홍성미(법무법인광장 미국변호사)씨 시부상 = 7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후 4시40분. 02-3010-2000

▲유승임씨 별세, 한덕동(한국일보 충청강원본부장)·혜옥·미옥씨 모친상, 이영아씨 시모상, 정정택·양승현씨 장모상 = 8일 오전 2시, 충북 청주삼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2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30분. 043-298-9200

▲박수남씨 별세, 이광재(전 한국지엠본부장)·홍재(전 광주일보·전남일보 주필)·봉재(전 세지중 교장)·경재(전주대 교수)·경란(동성대표)씨 모친상, 임형채(자영업)씨 장모상 = 광주 VIP장례타운 301호, 발인 10일 오전 8시30분, 장지보성 선영. 062-521-4444

'A' 환상 깨고 공부역량의 본질 설계해야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필자가 분석한 학교알리미 데이터에 따르면 대다수 중학교에서 성취도 A등급 비율은 20%에서 많게는 40%에 달한다. 하지만 상위 10%만이 1등급을 거머쥐는 고등학교 상대평가 체제에서 이들은 2등급 이하로 곤두박질치는 성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성공적인 대입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의 점수가 아닌 고등학교 입시의 두 축인 수시와 정시를 관통하는 역량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평가 체제의 차이

공부 방법의 변화를 논하기에 앞서 두 학령기 사이의 성적 산출 방식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는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A'를 받는 절대평가 방식이지만 고등학교는 상위 10% 이내여야 1등급을 받는 석차 중심의 치열한 상대평가 체제다. 특히 교육특구 지역인 서울 휘문중국어 성취도가 77.5%에 달하거나 대구 경신중 수축이 52.4%를 기록하는 등 A등급이 과반을 넘는 경우 중학교 성적은 고교 성적

을 예측하는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중학교는 교과서 중심의 좁은 범위에서 낮은 변별력의 시험을 치르지만 고등학교는 부교재와 모의고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킬러 문항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따라서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사고력의 깊이를 더하는 공부가 성적을 결정짓는다.

◆두 갈래의 길 수시와 정시

고등학교 진학 후 마주할 입시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뉜다. 정시 트랙은 단판 승부를 위한 압축적 폭발력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파악하는 메타인지 역량과 논리적 추론력을 길러야 하며 시험장의 압박을 견디는 평정심과 실수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반면 수시 트랙은 3년의 과정을 증명하는 지속적 몰입을 평가한다. 교과서 너머를 스스로 파고드는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과 학업 성실성 그리고 자신의 활동을 기록으로 엮어내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핵심이다. 특히 조별 과제 등에서 빛나는 협업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다. 이 두 역량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학습 체력을 형성한다.

◆과목별 학습의 전략적 선택

역량을 담을 그릇인 과목별 기초 실력은

단순한 진도 빠기가 아닌 심화와 이해에서 완성된다. 첫째로 수학 학습의 핵심은 학원 스케줄에 맞춘 단순한 진도 빠기가 아닌 심화와 이해의 완성에 있다. 둘째로 국어는 모든 공부의 뿌리인 문해력이 관건이다. 국어사전을 곁에 두고 어휘력을 보강하며 현대소설이나 고전 전집을 완독하여 긴 글을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 셋째로 영어는 중학교식 절대평가 성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상대평가로 전환되어 문법의 논리적 이해와 구문 해석 능력이 없으면 성적이 순식간에 무너진다.

◆시점의 결단 예비 고1은 7월부터 시작

중학교 3학년 7월은 대입 역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남들이 1월에 시작할 때 5개월 이상의 시간을 앞서간다. 이 기간은 중학교 때의 나쁜 습관을 교정하고 학습 체질을 개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때 부모는 아이를 다그치는 매니저가 아니라 아이의 공부 정서를 관리하고 함께 전략을 짜는 코치여야 한다. 이제 중학교 A등급이라는 안락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 7월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준비 과정이 훗날 대입 합격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도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흔들려도 결국 '신작'이다



기 지 수 현
최 빛 나
(IT부)

올해 국내 게임업계는 분명한 역설 위에 서 있다. 실적은 흔들리는데, 신작은 오히려 늘어난다.

펠어비스의 '붉은사막'을 비롯해 넷마블의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NHN의 '디시디아 듀얼룸 파이널 판타지' 등 주요 게임사들이 잇따라 신작을 내놓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공격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실적은 다르다.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은 늘었고,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일부 기업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작 확대는 부담이다. 개발비는 수천억 원 단위로 커졌고, 실패할 경우 손실은 그대로 남는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성과 없는 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신작은 성과로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넷마블의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은 스팀 매출 상위 20위권을 유지했고, 플레이스테이션 무료게임 차트 주요 지역 1위를 기록했다. NHN의 '디시디아 듀얼룸 파이널 판타지' 역시 일본 앱스토어 매출 순위 17위로 안착했다.

게임사들이 신작을 줄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등은 언제나 신작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존 서비스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IP가 시장을 다시 움직인다.

문제는 시장의 시선이다.

확률형 아이템과 유사 장르 논란은 신뢰를 떨어뜨렸다. 신작이 공개될 때마다 기대보다 의심이 먼저 나오는 이유다.

그 사이 글로벌 경쟁은 더 빨라졌다. 중

국 게임 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웠고, 콘솔과 PC 시장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국내 게임사들의 선택을 단순한 리스크로만 볼 수는 없다. 실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신작 개발을 이어가는 것은 생존 전략에 가깝다. 비용을 줄이는 대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이다.

게임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콘텐츠 산업이다. 성공작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지만, 실패는 비용으로 남는다.

과거의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움직임까지 같은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부족하다.

지금은 결과를 단정할 때가 아니라 선택의 의미를 짚어볼 때다. 신작 개발을 멈추지 않는 흐름은 산업의 의지다. 적어도 이 방향성만큼은 한 번쯤 지켜보고 응원할 이유가 있다.

/vitn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9일 (음 2월 2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하던 일이 결실을 주는 호기입니다. 60년생 재판이나 소송에서 승소 기분이 있습니다. 72년생 이성관계를 조심하세요. 망신 수가 있습니다. 84년생 사업가는 금전이 들어옵니다.



49년생 경사로 웃음꽃이 필니다. 61년생 자식의 출생이나 직장인 진급 소식이 전해집니다. 73년생 열심히 공부하세요. 과거 운이 꽃이 필니다. 85년생 애정 결실에 결혼운이 열립니다.



50년생 고생만 많고 빈손에 허탈감만 있겠습니다. 62년생 자식에게 금전으로 도움 주게 됩니다. 74년생 고생 많으나 빈손입니다. 86년생 빛을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운입니다.



51년생 특허품에 경사가 있고 재물은 좋아집니다. 63년생 부탁했던 금전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75년생 매사 되는 일 없이 답답합니다. 87년생 손재수 있으니 외출을 삼가하심이 좋습니다.



52년생 자식에게 뜻밖에 기쁜 일이 생깁니다. 64년생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76년생 이사하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88년생 토끼띠한테 찾아가면 후련합니다.



53년생 중풍을 조심하세요. 65년생 경제적 고통을 받습니다. 77년생 부부간 그 동안 쌓여진 고독감이 말끔히 해소됩니다. 89년생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여행자를 마련합니다.



54년생 오래 끌던 일이 시원한 해결을 봅니다. 66년생 집을 떠나 훌훌분하게 여행을 떠나 봅니다. 78년생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90년생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나 기쁨이 넘칩니다.



55년생 신경성 불안, 초조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67년생 하던 일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운입니다. 79년생 자식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91년생 식중독을 조심하세요.



56년생 시간이 지나면 만나 해결됩니다. 68년생 지난 실패를 거울 삼아 복귀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80년생 생명 잉태 소식이 있을 것 입니다. 92년생 계약에 유의해야 합니다.



57년생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심정 간절합니다. 69년생 싸움이 시작되면 폭행으로 번집니다. 81년생 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 93년생 매사 지치고 희망이 안보여 쉬고 싶습니다.



58년생 즐거운 여행을 떠나며 경사스러운 소식 있겠습니다. 70년생 건강을 주의하세요. 82년생 행복한 일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94년생 애인과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의 미소를 짓습니다.



59년생 자식들 공부 문제로 고민하겠습니다. 71년생 휴직상태의 운이오니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주변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95년생 학업에 매진하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외모 지상주의

인류 역사상 언제라도 아름다움이 칭송받지 않은 적은 없었다. 영웅 호걸 얘기에는 항상 미녀가 빠진 적이 없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경국지색(傾國之色)의 여주인공들이다. 하나의 말미, 은나라의 달기, 주나라의 포사가 그러하고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서면 오나라를 망하게 한 월나라의 미녀 서시가 있으며 당나라의 양귀비는 또 어떠한가? 그 미녀들의 말로는 좋지 않았다. 나라가 망하면서 처형당하는 황제와 함께 칼날 앞에 스러졌고 '미인박명(美人薄命)'이라는 사자성어의 훌륭한 예가 된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도 아름다운 외모를 갖기 위한 욕망은 한시도 쉬어 본 적이 없다. 현재, 한국을 글로벌하게 인지시킨 K-POP이나 드라마, 영화 못지않게 각광 받는 것은 한국 화장품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한 무더기씩 사가는 것이 한국산 화장품이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올리브영 방문이 한국 관광코스 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미용 뷰티 품목은 인기 만점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의 딸이 자신의 SNS에 올린 프로필 사진을 보고 성형 의혹을 제기하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실은 성형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모습을 성형하듯 보정 편집하여 올린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 일종의 사진 보정 앱을 한 디지털성형을 한 것으로,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하여 얼굴이 달라진 것으로 착각한 것이란다. 그 딸의 어머니인 연예인은 자신도 딸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놀랐으며 딸의 실물과 보정 전과 후의 사진을 올리고 '가짜의 삶'이란 해시태그까지 달았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영혼도 팔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은 시대, 누구를 탓하랴, 박명이어도 미인이 되고 싶다는 데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7	4
4		1	9	6	
7		3			
2	6	4	1		
	4		7		
8	3	7	6		
		9	2		
	8	7	3		5
2	5				6

6	9	8		4	
4	3		5		9
	5		7		4
	1				
	4	8	2	9	1
					9
1		7		4	
3		5		6	1
		9		3	5
				2	

9	8	6	1	7	8	2	9	2
9	7	1	8	2	2	8	9	6
2	2	8	9	6	9	1	7	8
2	9	7	2	1	8	6	8	9
8	8	2	2	9	6	7	1	9
6	1	9	7	8	9	8	2	2
1	6	2	9	8	7	9	2	8
8	9	9	6	2	1	2	8	7
7	2	8	8	9	2	9	6	1

2	9	8	1	6	7	9	2
1	2	9	2	7	9	6	8
8	6	7	8	9	2	2	9
9	7	6	1	9	8	2	8
8	1	2	6	2	8	9	7
9	8	2	9	2	7	1	8
7	8	8	2	6	9	9	1
6	9	1	9	8	2	8	7
2	2	9	7	8	1	8	6

주말 공부시간 격차 뚜렷... 상위권 학생 5.3배 더 공부했다

진학사, 고교생 3522명 대상 조사
주말 6시간 이상 공부 비율 결과
1등급 46.8%, 5등급 이하 8.8%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 격차가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에 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약 3배였던 등급 간 공부 시간 격차는 주말 5.3배까지 확대됐고, 실제 성적이 오른 학생들은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며 학습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진학사가 전국 고등학생 3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대별 평일과 주말 순수 공부 시간 격차는 주말에 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기준 하루 4시간 이상 스스로 공부하는 비율은 1등급이 55.0%로 집계됐다. 5등급 이하는 18.9%로, 약 2.9배 차이를 보였다. 주말에는 격차가 더 컸

다. 주말에 6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은 1등급이 46.8%였지만 5등급 이하는 8.8%에 그쳐 5.3배 차이를 나타냈다.

주말 장시간 학습 비율도 상위권에서 높았다. 주말 8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

율은 1등급이 26.8%로 조사돼 5등급 이하 3.8%보다 7배 많았다. 학교와 학원 일정으로 가용 시간이 비슷한 평일보다, 자기 주도 시간이 주어지는 주말에 등급 간 학습량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난 셈이다.

성적이 실제 오른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학습량 확보가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진학사는 고1 대비 고3 내신 성적이 상승한 2025년 고3 학생 1061명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88.2%가 성적 상승 전보다 순공 시간을 늘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3시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고 ▲1~2시간 증가 26.9% ▲3시간 이상 증가 24.6% 순이었다.

학습 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많이 포기한 것은 게임·SNS·유튜브 등 여가 시간이었다. 해당 응답 비율은 4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늦잠·늦은 취침 22.7% ▲친구들과의 약속 12.0%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부 방법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생활 관리가 함께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평일에는 학교와 학원 스케줄로 인해

학생 간 가용 시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온전한 자기 주도 시간이 주어지는 주말에 등급 간 실력이 결정된다"며 "평일 3배였던 격차가 주말에 5.3배로 커진다는 것은 하위권 학생들이 주말을 공백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성적 상승자들이 가장 먼저 유튜브와 SNS를 끊어낸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성적 역전을 꿈꾼다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주말 공부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두 차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조사는 지난 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고등학생 35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두 번째 조사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고1 대비 고3 내신 성적이 상승한 2025년 고3 학생 106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 도입 '수원 통닭거리' 중심 韓 미식관광 추진

선제적 적발 한계... 적극 신고가 핵심
모바일 접근성 높여 사각지대 최소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기존 PC 기반 신고 체계를 모바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연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신고와 적발률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신고 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PC 기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시공간 제약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있었다.

불법찬조금은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학교 정식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조성하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사이에서 금원을 할당해 모으거나, 명절 등에 감사와 격려를 이유로 운동부 코치나 감독 등에게 금품이나 기프트콘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이 주로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조성되는 만큼 선제적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근절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

했다.

모바일 신고는 안내문에 첨부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접속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 메신저 캡처, 녹취 파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접근성이 뛰어난 모바일 신고센터 운영으로 비위 행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직 내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수원시, 'K-미식벨트' 공모 선정

수원특례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케이(K)-미식벨트 조성 사업(치킨벨트)' 공모에 선정되며 수원 통닭거리를 중심으로 한 미식관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케이(K)-미식벨트 사업은 지역 대표 식재료와 미식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고도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공모 사업으로, 올해 전국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수원시는 치킨 분야에 선정되며 국비 50%를 포함한 총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수원시는 수원문화재단, 민간 여행사와 협력해 '치킨과 함께하는 수원 K-헤리티지 미식여행'을 추진한다. 행궁동 통닭거리와 수원화성, 화성행궁, 행리단길 등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 먹거리, 체험, 문화가 결합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통닭거리 자체를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프랜차이즈 중심이 아닌 지역 상권의 브랜드화를 도모하고, 치킨 만들기 체험과 미식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통닭거리 원데이 클래스 ▲교촌 1991스쿨 연계 관광 코스 ▲1박 2일 체류형 'K-치킨 그랜드투어' 등이 마련돼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시는 수원화성문화제, 수원 화성 미디어아트 등 기존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와 맞물려 K-치킨 벨트를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통닭거리라는 고유한 자원을 세계적인 미식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과 협력해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경기도, 정비소 150여곳에 친환경차 장비 지원

올해 총 사업비 3억 투입

경기도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정비를 집 근처 정비소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비가 없어 친환경자동차 정비 못하는 자동차정비소를 대상으로 장비 구입비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최근 경기도 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2022년에서 2025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으나, 친환경 정비 가능한 곳은 전체 정비소의 4.34% 수준인 1568개소 수준으로, 대부분 제작사 직영 서비스 센터에 쏠려 있어 긴 대기 시간과 부족한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는 올해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전기 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뉴스시스

해 150여 개 정비 사업장의 장비 현대화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운영 중인 종합·소형·전문정비업체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교육 이수자나 자격 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선정된 업체는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20만원까지 지

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품목을 2025년 5개에서 올해 6개로 확대했다. 지원 장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고장 진단기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에 이어 올해는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신냉매(R-1234yf) 대응을 위한 '에어컨 냉매 충전 회수기'가 추가됐다.

신청 희망 사업자는 5월 8일까지 경기도 택시교통과 또는 도내 5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6 | 해질 / 19:02

4월 9일 (木)
음력 : 2월 22일

수도권 날씨
6 ~ 1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3/10
- 동두천 4/11
- 가평 3/10
- 파주 3/11
- 서울 6/11
- 양평 4/12
- 용인 6/12
- 평택 4/13
- 인천 6/12
- 수원 6/12
- 백령도 7/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정체 해소 지원...큰 수익 창출될 것" /사진 뉴스시스

▲"美 달궐도 우주정거장 계획, 日에 사전통보 없이 중단 발표"

▲대만, 덴마크에도 '중국' 표기 반발...주대만 외교관 특권 취소

▲中 "美당국 심문받고 중국인 연구원 극단 선택"...진상규명 촉구

▲日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日EEZ 밖 낙하한 듯"

▲인구 세계4위 인니서 영아매매 조직 적발..."싱가포르 등에 팔아"



제로클릭 소비 부상
유통업계
AI 추천 쇼핑 '승부수'
나



Life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제약 특화
AI전문가 양성
L2



민족 보듬던 '통증 해결사' 시대 넘는 혁신으로 화려한 역주행

안티푸라민 히스토리



1933년 안티푸라민 연고



1999년 안티푸라민 에스로션



2010년 안티푸라민 조인트·파프



2011년 안티푸라민 허브콜 에어파스



2012년 안티푸라민 한방 카타플라스마



2015년
안티푸라민
코인



2017년
안티푸라민 액티브롤파스



2018년 안티푸라민 케토·로션



2018년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2020년 안티푸라민 손흥민 에디션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유한양행 '안티푸라민'

가정마다 비상약 상자 속에 하나쯤은 들어있던 초록색 캔. 뚜껑을 열면 코골을 찌르는 알싸한 멘톨 향과 함께 '엄마 손은 약손'이라며 아픈 부위에 정성스레 발라주던 추억의 연고. 바로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이다.

올해 출시 93주년을 맞이한 안티푸라민은 대한민국 제약사의 산증인이자, 가장 오래된 의약품 중 하나다. 과거의 유산에 머물 법도 한 이 장수 브랜드는 최근 3년간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열고 있다.

출시 93주년 맞은 국민 소염진통제 민간요법 대신 통증 잡는 상비약 개발

브랜드 신뢰도 바탕으로 제품군 넓혀 파스, 스프레이, 롤온 등 제형 세분화 꾸준한 연구개발로 효능·편의성 향상

◆ '제약보국' 염원 담긴 유한양행 1호

안티푸라민에는 고(故)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창업 정신인 '제약보국(製藥報國)'이 담겼다. 좋은 약을 만들어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유일한 박사의 절실함이기도 하다.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제대로 된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던 시대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당시 소아과를 운영하던 유일한 박사의 부인 호미리 여사는 가벼운 상처나 통증조차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비약 개발을 제안하며 조력했다. 제약 산업을 비롯해 대부분 산업이 근대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선구적인 도전에 나선 것이다.

그 결실로 1933년, 유한양행의 자체 개발 1호 의약품 '안티푸라민'이 세상에 나왔다. 멘톨, 캄파, 살리실산메칠 등을 주성분으로 한 이 연고는 소염 진통제로, 혈관 확장 작용, 가려움증 개선 등에 효과를 갖았다. 바세린 성분을 함유해 보습 효과까지 더해

졌다. 이름 그대로 '반대'를 뜻하는 '안티(Anti)와 '염증을 일으키다'라는 의미의 '인플레이(Inflame)'를 합쳐 염증을 없애는 약임을 직관적으로 알렸다.

◆ 신뢰 바탕 '종합 소염 진통 브랜드'로

안티푸라민은 수십년간 국민 소염진통제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매출액은 20~3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의약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편의성을 높인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기점은 2010년대 초반이었다. 유한양행은 안티푸라민의 강력한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제품군 다변화에 박차를 가했다. 기존 연고와 로션을 넘어 첩부제(파스류), 스프레이 형태 등을 선보이며 '안티푸라민 패밀리'를 구축했다.

우선 안티푸라민 로션형 제품은 일상 속 근육통 관리에 유용하다. 부드러운 도포감에 흡수력과 집중 관리 기능을 더한 크림형, 손에 묻히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롤온 타입 등으로 세분화됐다.

유한양행은 안티푸라민파프, 안티푸라민 조인트, 안티푸라민롤, 안티푸라민한방 카타플라스마 등 파프 제품 4종, 스프레이형 안티푸라민 콜 에어파스 등도 구성했다.

또 동전 모양의 안티푸라민 코인 플라스틱, 냉찜질과 온찜질이 가능한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통증의 원인인 염증을 감소시키는 제품인 안티푸라민 케토 등을 내놓아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했다.

2024년 10월에는 진통과 소염에 효과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성분으로 알려진 이부프로펜을 처방한 안티푸라민 비과워 플라스틱을 발매했다. 과거에는 원료, 제형 등 자원의 제약이 있었지만 유한양행은 꾸준한 연구 개발과 기술을 지속해 제품 효능과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켜 왔다.

이와 함께 유한양행은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2019년부터 한국 축구가 배출한 세계적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브랜드 모델로 선정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부상과 통증을 이겨내며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손흥민의 활약은 안티푸라민의 제품력과 이미지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이

후 2020년 하반기부터 안티푸라민 제품 포장에 손흥민을 함께 담은 '안티푸라민 손흥민 에디션'도 공개됐다. 안티푸라민 파스가 '손흥민 파스'라고 불리며 활력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층에서도 유명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2019년부터 손흥민 선수 모델 선정 손흥민 에디션... MZ세대에서도 인기

최근 3년간 누적 1000억 매출 돌파 시대 맞춘 변화로 늘 곁에 있는 브랜드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는 곧바로 '숫자'로 증명됐다. 사실 안티푸라민은 80살이 되던 2013년까지만 해도 매출 100억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제품군 확장과 젊은 마케팅 전략이 극대화되면서 실적도 폭발했다.

2014년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면서 2019년에는 200억원, 2022년 298억원 등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2023년 332억원, 2024년 360억원, 2025년 3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300억원대 매출을 유지해 해당 기간 누적 매출은 총 1048억원 수준이다. 90년이 넘는 정통 브랜드가 매년 자기 파괴적인 혁신을 이뤄내는 모습이다.

◆ 100년 기업 유한의 자부심

일제강점기 억압받고 아픈 민족을 보듬기 위해 탄생했던 안티푸라민. 1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국민의 통증을 뒀아준 그 초록색 캔 속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진심'과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이 변해온 '혁신'이 공존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안티푸라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 곁을 지키는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제품력 강화와 새로운 제형 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안티푸라민 '손흥민 에디션'

/유한양행



▲'원샷원킬' 손흥민, 첫 필드골...에이징커브 논란 후 '1골 4도움'
/사진 뉴스스
▲추신수, SSG 선수단 회복·육성 환경 개선에 2년 치 연봉 쾌척

▲'첫 선발 제외' 이정후, 필라델피아전서 대타 출전해 타점 추가
▲U-20 여자축구, 오늘 아시안컵 조 1위 놓고 '남북 대결'...설욕 다짐

▲여자배구 FA 시장 문 열렸다...'최대어' 정호영 등 20명 공시
▲KPGA노조 "부당 해고 복직자, 2차 가해"...협회 "보복 격리 없다" 반박

SAMSUNG

Galaxy S26 Ultra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펜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세요